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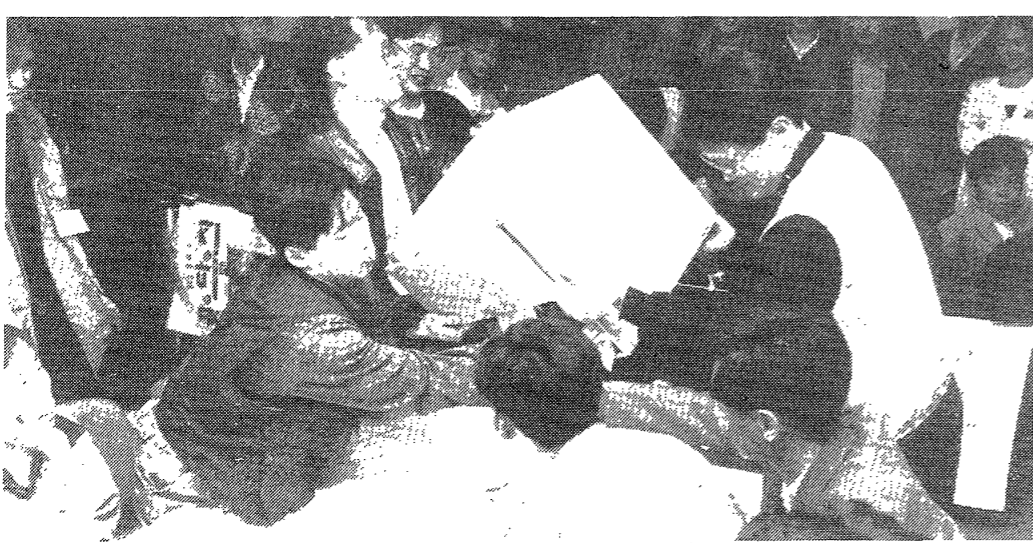
금치일엔 마치 마음에 드는 꽃이
빛깔만 좋고 향기가 없는
것처럼 공교로운 말도 이같이 행하지 않
으면 소욕이 없다. <법구경·화랑품 219절>

東大新聞

본인: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 (3320-3492)
FAX: (0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3770-2057)

제 1162 호 (주간) 1994. 1. 11 동국대학교 10-10 1995. 10. 13 제3호 후원회(가) 승인자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4년(불기2538년) 11월 16일 (수요일) 11

제27대 총학생회 정·부회장에 안진우·곽유찬조 당선 총여 정·부회장에 김나영·이윤수조



◊제27대 총학생회장으로 안진우·곽유찬조가 2천8백62표를 얻어 당선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 10일 학생회관 앞 개표장면.

제27대 총학생회 정·부회장으로 안진우·곽유찬조가 당선됐다. 지난 10일 오후 7시부터 학생회관 로비에서 진행된 개표 결과, 총유권자 8천6백36명 중에 4천6백66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1지역(법과대, 경사대, 사과대)은 총유권자 1천9백58명중 1천55명이 투표하여 53.9%의 투표율을 보였다. 안진우·곽유찬조는 4백31표를 얻고 이영재·이상환조는 5백86표를 얻었으며 무효는 38표로 나타났다.

2지역(문과대, 이과대)은 총유권자 1천5백13명중 8백6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안·곽조가 4백76표를 얻고, 이·이조가 2백97표를 얻었으며

총장선거 내년1월15일 확정 2차 선관위 모임서

교수회(회장=이순용·법학)는 제2차 총장후보추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김진철·정치외교학)회의를 가지고 총장선거의 구체적 일정을 발표했다.

총장임후보자 등록일은 내년 1월 3일부터 5일까지이며 6일 확정공고를 내고 선거일은 1월15일(일)로 결정했다.

선거관리위원장 김진철교수는 "총장선거가 학교행정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며 "차기총장을 너무 이른 시기에 선출할때 생길수 있는 행정상의 공백이나 이완을 없애기 위해 선거일을 내년 1월로 정했다"고 밝혔다.

또 "총장임기만료일(95년 2월28

'95교수초빙 접수마감 다음주부터 학과심사

총 79명을 총원할 예정인 '95학년도 교수초빙 접수 마감(16일) 서울·경주 각 캠퍼스별로 마감된다. 서울 38명, 경주 41명 초빙예정인 이번 신규교원모집은 접수가 끝나는데로 서류분류를 거쳐 다음주부터 학과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국가고시및 공직설명회

계산고시(사건=연기영·법학)는 국가고시및 공직 설명회를 오는 17일(L.301), 18일(L.501) 이를 동안 가질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은 다음과 같다. 17일 △격려사=백봉출(법학)교수 △물권가속법=한봉희(법학)교수 △회사법=박영길(법학)교수 △국제법·국제경제법=백봉출교수 △형법=손해목(법학)교수 △행정법=이순용(법학)교수 18일 △형사소송법=이석연(법학)교수 △민중·채권=연기영(법학)교수 △행정법=이영우(행정학)교수 △공직설명회=강원국(총무처 인사관리관) △어음수표·해상보험법=이영규(한

국고보조금 13억여원 지원 교육부예산 삭감속 본교 지원금 증가

'94년 사립대학 시설·설비 확충 재정지원 국고보조금으로 본교에 13억1천3백28만6천원이 지난 8일 송금됐다.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기자재구입비=4억8천3백8십8천원 △도서구입비=2억8천2백70만

33표의 무효표가 나왔다. 3지역(사범대)은 총유권자 9백68명중 6백87명이 투표했으며 안·곽조를 지지한 표가 5백9표, 이·이조를 지지한 표가 1백59표, 무효가 18표로 집계됐다.

4지역(공과대)은 총유권자 1천9백50명중 8백73명이 투표했다. 5백42명이 안·곽조를 지지하고 3백14명이 이·이조를 지지했다. 무효표는 17표로 나타났다.

5지역(법과대, 예술대)은 6백34명의 총유권자중 3백71명이 투표했고 안·곽조는 2백30표를 얻었으며 이·이조는 1백33표를 얻었다. 무효표는 11표로 집계됐다.

6지역(농과대)은 총유권자 4백62

보리수 안민가(安民歌)

신라 향가(鄉歌) 가운데 총담(德談) 스님이 불렀던 안민가(安民歌)에 보면 임금과 신하는 물론 백성들까지 모두가 각자 맡은바 직분의 책임자답게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노래에서 강조되는 '답게'라는 용어는 위정자들은 국민에게 권위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愛民)하고 정직한 정치(政績)를 하여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며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국가에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모두를 이 '답게'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고려시대 몽고병의 침입으로 국민들의 정신적 의지적인 황통사(恨痛) 9총담과 부인사(婦公山)에 봉안된 대장경이 오랑캐들에 의해 불타버렸다.

당시 고종임금은 그 책임을 통감하고 대장경을 다시 만들겠다는 군신상하기고문(君臣上下祈告文)을 지어 부쳐놓고 모든 하늘에 참회하고 다시는 이러한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맹서를 하였다.

요즈음 국내외의 혼란스러운 정치분야의 문제는 제외 하고 우선 사회의 윤리 도덕성 문제로 모두가 마음들이 편안하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다. 우리 주위에 빈번히 일어나는 패륜적으로 흉폭한 사건 사고 하며 배금(拜金)과 물질만능에 타락한 이기적인 성향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의 사건들은 모두가 자기답게 살지 못함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얼마전 대통령은 성수대교 붕괴 사건과 관련하여 부덕(不德)의 표현으로 대 국민 사과를 하였고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는 국민의식에 대한 자정(自淨)의 노력으로 '남의 말' 좋게 합시다 '남을 위해 기도 합시다' '맑고 향기롭게' 등의 사회 도덕과 자연 환경에까지 깊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책임자가 그 책임을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그 등기에 영향을 끼친 책임을 회피하고 그 결과만을 가지고 아래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위정자나 상하 관료내지 종교계 교육계등의 모든 지도자가 있다면 이는 이미 지도자가 아니다.

시대의 역사를 통하여 불미 '답게' 사는 운동은 물의 흐름처럼 위에서 아래로 전개 되었다.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면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면 백성이 백성답지 못할것은 자명한 것이다. 그것은 위사람은 아래사람의 본(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다"라는 상탁하부정(上濁下不淨)의 말이 나온 것이다. 누가 답게 사기를 묻기 이전에 자신에게 먼저 묻고 서로가 답게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온 나라가 편안하게 되는 길일 것이다.

崔法慧

본교를 방문 민병천(정치외교학)총장과 양교교류협력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슈퍼이대측의 자매결연 책임교수인 불워벨교수는 구체적 교류의 지를 피력하고 교류방법과 내용을 제시했다.

또한 본교 국제화교류위원회 조희영(경영학)경영대학원장은 형식보다는 실질적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유학생 선발
국제부(부장=이원부·정보관리학)는 자매결연 대학인 중국 청화대학과 남경대학 유학생을 내년 3월에 선발할 예정이다.

제32회 학술상 및 제9회 동내문학상

작품 모집

동대신문사

제32회 학술상 작품모집

본교 학생들의 학구열을 고취하고 학문적 성과를 진작시키기 위해 제정, 알찬 수확을 거두는 본사 학술상이 올해로 32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학술상에도 학문연구에 정진하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로 동국의 학풍을 더욱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분야
인문과학상: 본상 및 가작(본상 50만원, 가작 25만원)
사회과학상: 본상 및 가작(본상 50만원, 가작 25만원)
자연과학상: 본상 및 가작(본상 50만원, 가작 25만원)

◇응모요령
3개분야 모두 2백자원고지 60매 내외의 학술논문

◇응모자격
서울 및 경주캠퍼스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심사위원
본사에서 위촉하여 임상작과 함께 발표

◇제출기간
1994년 11월10일~30일까지

◇입상작 발표
1995년 1월1일자 본지지상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바람
전화 (02) 260-3491.2

제9회 동내문학상 작품모집

본사에서는 동국의 문학적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내일의 한국문단을 이끌어 나갈 참신한 인재를 발굴하고자 제9회 동내문학상 작품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시 부문: 3편 내외
소설부문: 2백자 원고지 60매내외
평론부문: 2백자 원고지 60매내외

◇응모자격
서울 및 경주캠퍼스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제출기간
1994년 11월10일~30일까지

◇심사위원
본사에서 위촉하여 임상작과 함께 발표

◇입상작 발표
1995년 1월1일자 본지 지상
※제출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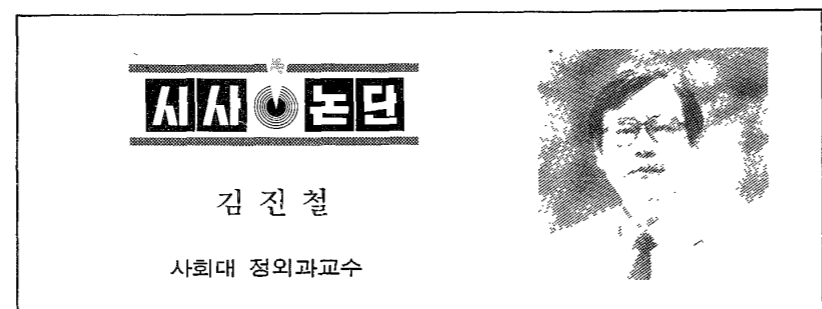
12·12기소유에 판결

법정신 구현되어야 할 정치적사건

12·12사태 고소·고발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두 전직대통령을 포함한 34명의 주모자들에게 대해 형법상 군사반란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내림으로써, 공소시효를 1개월여 앞둔 12·12사태 관련 피의자들의 사법처리 여부가 다시 지대한 국민적 관심속에 정치쟁점화되고 있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헌, 이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기소하면 사회적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는 점, 대다수 국민은 그러한 갈등반복을 원치 않을 것이라는 점, 현재는 국민화를 위해 매진하여야 할 때라는 점등을 기소유예처분의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검찰이 이 사건의 성격을 '하극상'에 의한 군사반란'으로 규정하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정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교육지책으로 이 사건의 성격규정과 사법처리에 정치적 판단이 강하게 작용했음을 보여 준다. 이는 작년 5월 김영삼 대통령이 밝힌 이 사건의 성격규정과 일치한다. 당시 김대통령은 "12·12는 하극상에 의한 군사쿠데타적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관련자처벌은 역사의 심판에 맡기자"고 밝혔다.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의 이면에는 이러한 대통령의 입장이 정치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찰은 '기소유예'의 제도를 심신원용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림으로써 기소권의 남용이란 비난을 자초했으며, 12·12사태의 해결은 다시 국회에서 정치적 정점으로 부각되어 정치적 타결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최근 정국의 모습이다.

상식적으로 형사소송법상 기소유예는 범죄인의 사회조기 복귀 등 특별예방적 목적이나 극히 경미한 범죄에 처벌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또한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엄히 훈계하고



김진철
사회대 정의과교수

개과전환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다. 더욱이 검찰이 규정한 피의자들의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죄는 법정형이 사형뿐인 죄목들로서 원칙적으로 기소유예에 해당되지 않는 중죄에 해당하는 죄목이다.

그동안 검찰은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해 정치권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나머지 형평을 잃은 법집행을 해왔던 반면 검찰의 시국사건을 비롯한 공안사범에 대한 편파적인 법집행과 편법수사는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리고 검찰이 국민의 대다수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최근의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국민적 정서가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제 전환기에 처한 우리민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모두가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응분의 대가이며, 역사의 심판이다. 내란이든 반란이든 12·12사태는 우리나라의 국헌에 정면도전하고 우리나라의 정치발전과 민주화를 퇴보시킨 역사의 시계바늘을 되돌려 놓은 군사쿠데타이다. 또한 주도자들에 의한 반동적 정치는 한국현대사의 최대의 아픔이자 치욕인 광주사태

에서 극에 달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대역반란죄가 역사의 심판에만 처벌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닐진대 국민화합이라는 너울하에 법의 공정한 심판없이 넘겨질 수는 없는 문제일 것이다.

12·12사태의 사법적 해결을 보면서 더 우려되는 것은 작금의 김영삼정부가 취하는 보수세력과의 타협과 개혁정치의 실종으로 신공안정국이 등장하고, 여기에 5, 6공 세력을 주축으로 하는 구기득권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12·12사태의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 6공 세력을 주축으로 하는 구기득권세력은 김영삼정부의 개혁후퇴에 맞춰 목소리를 더욱 크게 하고 있다. 12·12사태의 사법적 처리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고 '전-노' 회담을 갖는 등 김영삼정부에 대해 암묵적 시위를 보이고 있으며, 여당안에서 색깔론이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고 김영삼 정부에 대한 '음해공작설'도 회자되어 왔다. 더 나아가 내년 지자체나 96총선을 계기로 신당을 창당하여 정치세력화를 기도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고, 신공안정국을 조성해 사회를 이분법적으로 쪼갠다고 사상공세를 퍼 신보수세력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가시화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정세변화는 현 정권의 개

혁실종과 신보수주의와의 타협으로부터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김영삼정부의 '중단없는 개혁'은 개혁 표류와 개혁실종을 거쳐 이제 개혁붕괴까지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출범 당시의 '위로'부터 개혁은 3당합당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총체적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옆으로' 그리고 '아래로' 확산되지 못했다.

김대통령은 지난 10월 24일 대국민 사과담화에서 총체적 개혁을 또다시 언급했다. 현 시점에서 총체적 개혁이 반복되는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그 요체가 단순히 총체적 개혁만으로 한정되어서는 더더구나 안될 것이다. 현 정국의 총체적 위기는 단순히 개혁을 통한 정국회복과 개혁의 문제 자체가 아니다. 그것은 정권안정보다는 과거와의 단결을 위한 사정개혁의 지속과 보수세력과의 타협을 지향하는 선상에서 재발 방지이다. 그것은 정권안정보다는 과거와의 단결을 위한 사정개혁의 지속과 보수세력과의 타협을 지향하는 선상에서 재발 방지이다. 그것은 정권안정보다는 과거와의 단결을 위한 사정개혁의 지속과 보수세력과의 타협을 지향하는 선상에서 재발 방지이다.

집권 2기를 채 지나지 않아 현 정권이 당면한 총체적 위기의 골짜기는 바로 12·12사태의 공정한 사법처리에서부터 그 단결을 풀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한 역사적 사건의 사법적 성격규정과 처리의 차이를 넘어서는 역사적 재출발의 의미를 지니는 문제이다. 불행히도 역사적 과오가 다시는 이 땅에 재현되어서는 안된다는 엄중한 메시지이며, 준엄한 법의 심판으로 향후 이 땅의 정치사에 반동과 광란의 재발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법의 정신으로 구현되어야 할 정치적 사건이다.

사설

과거청산과 의회민주주의

역사는 우리의 존재를 인식시켜 주는 가장 소중한 거울이다. 그러나 우리의 우리정치를 보면서 반역사적인 도전이 항상 반동의 기회를 노리고 있고, 올바른 역사를 수립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한다.

그것은 단순히 권위주의와 성장일변도의 국가정책 연장선상에서 탄생된 문명정부로서 피할 수 없는 총체적 국가관리체제의 난맥상 때문만이 아니다. 오히려 온 국민을 좌절감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문민"을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과거청산의 한계로 인한 국적적 딜레마 때문이다.

얼마전 12·12사태에 대한 검찰의 발표를 보면서 불행하게도 해방 후 일제강점기의 청산에 실패했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특히 검찰 스스로 12·12사태를 가리켜 "명백한 군사반란"이라고 단정하면서도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반란행위자에 대한 법률적 소수를 유보함으로써 국민감정은 이반된 국가관리의 한계와 아무것도 못하는 행정권의 무능력을 드러내놓고 보여주고 있다.

이바람에 정치권 내외에서 김영삼정부 들어 처음으로 본질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기소유예처리의 부당성을 들어 야당이 반발함에 따라 국회공전이라는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고있는 것이다. 이 와중에서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는 여당에서는 노선갈등시비가 계속되고 있고 구여권의 보수측소리와 옛 군사정권 세력의 의혹적 행보까지 나타나는 반역사적 혼란상을 보이고 있다.

이 지경에 이른 원인은 간단하다. 그것은 한마디로 정당하지 못한 과거청산의 문제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권의 해결노력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역사적 오류는 반드시 철결하고 여러 가지 과거청산의 방법중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국회차원에서 의회민주주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소시효완성이 다가오는 지금 군사반란행위가 법률적인 한계로 인하여 회색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 정치권에서는 시간적으로 단호하게 "민주적 단결"을 단행할 것인가. 아니면 협상과 타협을 통한 "정치적 과거청산"을 시도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만 남았다. 바로 이 과정에서 정치권이 필요하고 의회민주주의가 절실해진다.

과거청산을 의회민주주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권위주의에 "충성서약"이라도 하듯 검찰이 스스로 법치주의를 포기한 것에 대하여, 더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여당이 먼저 과거청산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야당은 역사적 관점에서 "과거청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군사반란에 대한 국민여론을 관철시키려는 차원에서 당당하게 의회민주주의를 고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번만큼은 과거청산을 분명히하여 올바른 역사를 수립해야 하고, 동시에 이를 거울삼아 정치권은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전회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

동국대평 박원진



(이석중 기자)

대학순위보도와 종합평가 인정제 두번째 사회봉사·교수영역

사회봉사영역 이 영역은 8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며 총5백점중 30점이 배당돼 평가항목중 가장낮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항목이다.

첫번째 평가 항목으로 사회봉사 부분은 △사회교육프로그램의 적절성 (6) △교수의 사회봉사 참여 (4) △학생의 사회봉사 참여실적 (2) △사회봉사 행정체제 (2) 등 총14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번째 평가항목은 대외협동으로 △산학연 협동 계획과 실적 (8) △국내 대외간협력 (2) △의국대학과의 국제협력 (4) △대의협동 담당 기구와 운영상황 (2) 등 총 16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내외간의 협력은 얼마전 원광대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는 등 일정정도 노력이 있었으나 보다는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의 체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외국 대학과의 협력역시 최근 많은 노력이 보이는 보다 적극적인 교류가 요구되고 있다.

교수영역 교수영역은 대학 평가항목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부분은 △교수의 구성 (32) △수업부담 및 복직 (12) △교수인사 (20) △교수개발 (16) 등 4개항목 총7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번째 평가 영역인 교수구성 부분은 전임교수 확보정도, 전임교수 박사학위 취득정도, 전임교수 출신의 다양성, 시간강사 의존도, 시간강사 관리 및 처우상태, 조교학보의 적절성 등으로 나누어 평가하게 된다.

먼저 전임 교수 확보 정도는 94년 1학기 현재 교수 1인당 학생 35.

46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95학년도 신규교수 영입이 끝나고 나면 교수 1인당 학생수는 30명정도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전임 교수의 박사학위 취득정도, 전임교수 출신교 다양성 등의 상황은 좋은 평가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본교의 시간강사 의존도는 높은 편이다. 특히 높은 비율을 보이는과는 국문과, 지교과, 정외과 등으로 이들과는 시간강사의 강의 비율이 60%선을 넘고있다. 이부분 역시 95학년도 신규교수초빙이 끝나면 25%선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두번째 평가영역인 수업부담 및 복지부분에서는 우선 교수의 강의 부담이 11.6시간으로 높은 편에 속하고 있고 교수의 처우나 후생복지 시설역시 좋은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의 개선을 위해 교수회관의 정비, 회의실, 세미나실 확보, 교수충원등이 요구되고 있다.

다음으로 교수인사 부분은 교수

채용에서 최소 2개월이상의 채용공고와 함께 평가기준의 명료화, 구체화와 임용과정에서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공개강의 등을 제도화해야하며, 승진 및 재임용에 있어서도 그 기준을 명확히하고 강의평가 결과의 반영등을 통한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것이다.

교수영역의 마지막 평가부분인 교수개발은 교수 개인의 발전이자 학생을 지도하는 교수의 입장에서 대학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이부분의 첫번째 항목은 국내외 연수참여 실적인데 이는 과거 3년간 수차례 증가가 있어왔으며 그 수치 또한 양호한 편이다. 두번째 항목인 교수개발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신규임용교수 오리엔테이션을 제외하면 전무한 실정이다. 마지막 평가대상인 연구년제는 교대, 서강대, 연대 등의 1/3수준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4회 비씨카드 논문현상공모

꿈이 있는 신용사회

"꿈이 있는 신용사회를 열어가는 비씨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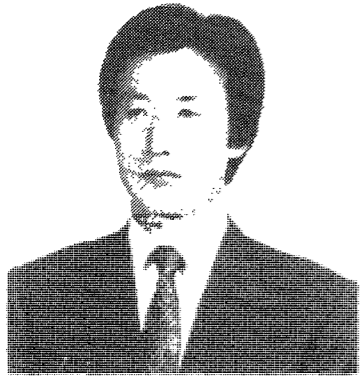
꿈이 있는 신용사회 — 당신의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신용사회의 주역은 바로 여러분 — 날카로운 지성, 뜨거운 가슴으로 꿈이 있는 신용사회를 위한 당신의 주장을 펼쳐보십시오.

- 응모자격**
 - 제한없음
- 논문주제**
 - 신용카드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 신용카드와 통화량증가의 실증적 관계
 - 신용카드 정착을 위한 신용카드의 역할과 기능
 - 신용카드의 이용률 제고를 위한 마케팅 전략
 - 정보통신과 사회에서의 신용카드 산업의 발전방안
 - 신용카드의 경쟁력인식 확신을 위한 효율적인 홍보방안
 - 신용카드의 고객만족 경영
 - 신용카드관련 법률의 문제와 특점
 - 신용카드사의 효율적인 고객/B/C 구축 및 활용방안
 - 국제화, 개방화 시대의 신용카드사의 전략적 대응방안
- 공모요령**
 - 공모기간: '94. 11. 28 ~ '95. 2. 25
 - 입선작 발표: '95. 3. 31
 - 우선접수는 등기발송에 한하며, 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 응모요령**
 - 논문매수: 200자 원고지 100매 내의 분량(10매 정도의 요약문 첨부)
 - 논문작성요령: A4 규격용지(워드프로세서) 사용
 - 제출처: 비씨카드주식회사 종합기획부 논문현상공모 담당자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87 우편번호 137-070)
- 입선작 발표 및 시상**
 - 입선작 발표: 1995. 3. 31 (한국경제신문 공표 및 개별통지)
 - 시상:
 - 1위 수상(1명) / 상금 300만원, 상패
 - 2위 수상(2명) / 상금 각 200만원, 상패
 - 3위 수상(3명) / 상금 각 100만원, 상패
 - 4위 수상(5명) / 상금 각 50만원, 상패
 - 참가 상(응모작전력) / 기념품 증정
- 기타사항**
 - 논문심사결과에 따라 부문별 입선작이 없을 수 있음
 - 논문공모시 반드시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명시
 - 접수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으며 입선작에 대한 소유권은 당시에 귀속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종합기획부로 문의(전화: 02/520-4871~3)

비씨카드

일불승설을 중심으로 한 '백제 의영 유식사상'

백제교학 중국 못지않게 융성해 참여한 교의형성 불교대외에 어긋난 통불교적 관점 정면에서 논박



이 만

(불교문화대 불교학과 교수)

신라 발전 기반다진 고구려

백제시대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의 불교사상에 있어서 근간이 되고 있는 것은 그 역사적인 성격에서나 자료적인 면에서 신라시대의 그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이보다 일찍 불교를 받아들여서 어느정도 교학적인 발전과 수행의 기반을 다졌던 것으로 알려진 고구려와 백제시대의 그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하자면 기록상 신라보다 약 150년 가량 먼저 이를 전수해와 그 나름대로 독자적인 교학체와 교단을 형성한 역할을 하였으며, 담징도 일본에 여러 가지의 문화유물을 전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문화생활을 하게 하는 등 큰 기여를 했고, 해판과 해자 및 해관 등이 당시에 낙후된 일본 불교계를 이끌어 갔던 것이다. 백제에서도 결이이 직접 인도에 가서 법본 아비담장과 오부를 등을 가져와서 이를 번역하여 널리 보급하였으며, 관록도 일본에 문서문화와 의료기술 등을 전수해주고 또한 최초의 승정이 되어서 일본 불교계를 지도했고, 이밖에 해종과 도장 등의 활동도 일본에서 두드러졌던 것이다.

이와 같은 기록들에 의하면 고구려나 백제의 승려들은 거의가 국내에서의 활동 보다는 국외에서의 그것이 더 활발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러한 까닭은 무엇보다도 이들에 관한 제반 기록이 국내의 관계자료에는 거의 언급이 없고 간혹 중국이나 일본의 제전적에서 그나마

도 보이기 때문에 이에 의거한 데서 자연 그와 같이 인식된 것 같다.

백제 패망으로

의영의 출신은

백제에서 신라로...

지금까지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백제시대의 교학사상을 보완해주고 국내에서는 활동사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인물로 부각되고 있는 승려가 있다. 그가 바로 의영이 아닌가 한다. 의영이 언제 활동하고 그 출신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그의 저작으로 알려진 약사본원경소의 주석에, "백제 의영사" "영초집, 동역전등록록(대정 55-1152-4)" 이라고 표기되고 있어서 그가 백제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전적에서는 의영을 신라인으로 밝히고 있는데 "최정찬, 수호국계장 권하지중(대정 74-224-1)", 이와같은 다른 사실은 백제가 의자왕 20년(660)에 신라에게 망하자 자연 그의 출신도 백제에서 신라로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대개 7세기의 후반에 활동했던 것으로 추측되고, 국내·외의 활동 여부에 관해서는 의영을 신라인으로 불렀던 일본의 최정(767-822)이 그의 법회수구에서 의영의 교설내용을 인용할 때에 "외국의법사조장문..."이라 기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일찍이 중국에 유학한 적이 있어서 비교적 그 나라의 사정에 밝았던 그가 같은 장소에서 중국인들을 가리킬 때에 "당조라고 하거나 '대당'이라고 한 것과는 확연하게 구별되고 있는 점에서 의영이 국내에서만 교학활동을 한 것 같다. 그리고 간혹 신라 사람들이 중국 등에 유학했을 적에 이를 잘 모르고서 그들을 당나라의 출신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의영에게서는 이와 같은 표기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그는 오직 국내에서만 활동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더욱 신빙성 있게 뒷받침해주고 있다.

아무튼 이러한 의영에게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던 그의 또다른 저술이 밝혀지고 있어서 관심이 가는 것이다. 즉 그의 저작은 오늘날 모두가 일실되어서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약사본원경소와 유기사지론의림의 두 서명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 전부인데, 일본의 연강이 찬술한 정촌론에 보면, "영유이 화신론장(2권)을 지어서 현장 등이 설하는 신유기의 교의와 전제들의 구유식과의 상위설을 열 네가지로 나누어서 변별하고, 법보도 또한 현장 삼장이 번역한 경론의 많은 부분이 도리에 어긋남을 보고서 일승불성구경론(6권)과 열반경소(15권)를 지어서 그의 신의를 파해했으며, 의영법사도 신구경(20권)을

저술하여 현장의 뜻을 논파했다"는 것인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의영이 신구경이라는 장소를 지어 당시의 신·구학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되고 있던 일부 무불성 중생의 성불에 관한 문제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자기 나름대로 이를 적극적으로 변별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의 발견으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는 전혀 몰랐던 그의 교학사상의 일부라도 유추할 수가 있어서 다행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특히 백제시대의 불교교학이 중국의 그것 못지않게 융성하여 최첨단 교의 등을 숙지하고는, 통불교적인 관점에서 불교의 대외에 어긋나는 저들의 주장을 정면에서 논박하였다는 역사적인 사실에 다시 한번 놀라울 뿐이며, 백제불교가 그들의 예술만큼이나 찬란했던 과거가 있었다는 흔적이 현실로 받아들여져서 새로운 관심거리로 등장하게 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의영의 이와같은 교학태도는 대부족의 우리나라 출신의 승려들 사이에서 주창되었던 이념으로써 비록 범상중에 속한 경우라도 그 입장은 마찬가지로였던 것이다. 말하자면 현장의 신유식에서는 핵심변경과 유기사지론 등의 교설이 의거하여 오성각별설을 주장하는데, 이러한 근거는 중생들의 실상을 여실하게 관찰해보면 성불할 수 있는 보살이나 성문연각의 부류와는 달리 도저히 성불할 수 없는 무불성장성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대승불교가 일체중생 실유불성설을 표방하는 이념과도 어긋나기 때문에 일반 대승교학자들은 물론이고, 중국 내의 범상중에 소속되어 있던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 같음이 있었던 것이다.

특히 신라계 출신의 승려들 사이에서는 이 무불성인 단선천체에 관한 이념이 중국의 그들의 주장과 상이해서 법계로 불리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를 보면, 핵심밀경소와 인왕경소를 남긴 원추이나 도중·태현 및 유가기를 지은 도륜 등 신라출신들은 일승사상을 주장했는데, 이 점에서 삼승진실과 오성각별을 설하는 중국 범상중과 구별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이에 의거하여 신라인들의 불성관을 간략하게 살펴 보면, 먼저 원효는 그의 법화경중요에서 말하기를,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에 이승은 절대로 성불할 수 없거나 불성이 없는 유정등을 설했지만, 이들은 모두가 방편으로써 요의 교설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만약에 일승만을 설하고 제이승은 없으며 일체중생이 모두 성불할 수 있다고 교설하는 경전은 진실로 요의경인 것이다"라고 해서, 철저한 일승가의 입장을 취하는 한편으로 일변경에서 교설하는 불성의 유유에 관한 시구의 해석에 심혈을 기울여 전체성불의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원효도 역시 일불승사상을 주장했음은 이미 다 아는 일이다. 즉, "자신이 개입한 유식중에서는 오상각별설을 고집하여 일성개성설을 극력 반대하지만, 서명은 이러한 5성각별설에 구애받지 않고 해심밀경 등에서 무성유정과 정성이승을 거론한 것은 근거미숙일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결정코 성불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회통한다. 오히려 회연과 천태의 일승가에 친동하여 일성개성설을 고취한 것, 가장 주의할만하다"고 했으며, 태현은 대반열반경(담주창열) 고귀대왕품의 해석에 있어서 6관을 들어서 주석하는 가운데 일체도 천제삼을 버리면 바이호르 성불할 수 있고 버리지 못하면 성불할 수 없으며, 정법을 듣거나 듣지 않거나간에 마땅히 무상정등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하여 의영은 자주 영운, 범보, 원효, 지주, 현응 등과 함께 불성문제에 있어서 일승가로 불리워져 그의 주석내용의 일부가 후세의 여러 장소에서 신전되고 있는데, 그는 특히 삼승가로 알려진 신태의 설을 반박하여 그 잘못을 지적하고 있으며, 범상중조인 자원의 불성에 관한 오류에 대해서도 이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어서 주목되는 것이다. 즉, "자은 규기가 비록 번경을 집필한 문장의 대가였지만 승만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여져 그렇게 출렁했는지 모르겠다. 승만경을 다 보아도 사승이 신표이고, 일승이 권교대 내용은 없다. 오류를 범한 것이다"라고 논술하고 있는 것이 그것인데, 의영은 자은이 승만경을 잘못 해석하여 사승이 신표이고, 일승이 권교대 함에 따라 그 후학들도 이에 동조하여 교학사상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영의 논박내용 등을 본다면 그는 분명히 일승가로서 그 방편의 교학의 천착에 있어서는 이미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던 학승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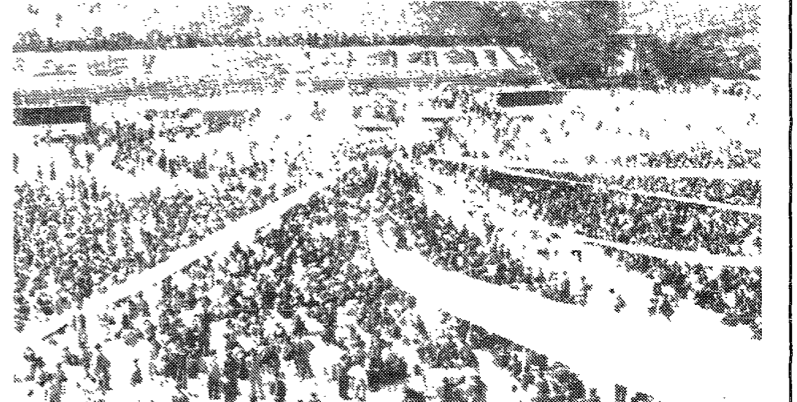
고대 불교사상연구위해

백제교학사상 연구해야

우리나라의 고대 불교사상을 논할 때면 우리는 흔히 신라시대의 그것을 가지고 천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다평스럽게도 이번 백제 의영의 새로운 저술내용이 일부나마 발견되고, 또한 거기에서 그가 천착한 문제를 가지고 본래 그것을 제기했던 중국인들과 저작 등을 통하여 격렬하게 논쟁했다는 사실은, 백제시대의 불교교학사상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를 절실히 느끼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시사 초점 노동자 대회

민주노총준비위원회 발족



전국노동자대표자회의(이하 전노대)가 해체된 이후 노동운동권에 '이렇다할 조직없이 민주노총건설추진활동이 계속됐다.

노동계에선 이 활동의 결실을 지난 13일 경희대에서 열린 '민주노총건설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얻었다.

단지 출발점에 불과하다하더라도 산별민주노총건설을 위한 '민주노총준비위원회'가 발족된 것이다.

민주노총건설은 군사정권의 유물인 한국노총독점체제의 개혁을 이끌어 내고 제3자개입금지, 복수노조금지, 노동

조합 정치참여금지 등의 법적조항으로 인해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한 1천만노동자들의 직업적 자율성과 인권의 신장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각계 관심의 대상이었다.

이번 노동자대회는 그동안 전노협, 업종회의, 현충원등을 기본단위로 활동한 '민주노총추진위'등 여러 민주노동계의 민주화를 향한 노력으로 민주노총건설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내년 상반기 이 시대 자율적 개혁을 불러일으키며 민주의 뜻을 피울 민주노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부)

동약로 선거 전·후

"안녕하세요. 오늘은 총(회)학생회 선거 마지막입니다. 0 0 0 0 열심히 하겠습니니다."

재벌명령 울리는 외침.

"투표하셨어요. 투표하고 가세요" 애처로운 목소리.

투표마감시간 1시간을 남겨놓고 투표율 50%를 넘지 못하는 웃지못할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쯤엔 애처로운 목소리로 사그라 들고 "너 투표했어 안했어 빨리해"였다.

한꺼번에 치뤄졌다. 그럼으로써 여학우들에게는 투표용지 두장이 건네졌다.

선거에서 단독출마 일 경우 당선 의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투표율인데 투표자의 의견을 무시한채 투표용지를 나눠주는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 선관위원 "하지 않겠다는 학생에게는 주지않았다. 오히려 총학 투표 안했었다는 학생도 있었는데..."라고 맞섰다.

일반학우 입장에선 투표하겠다고 기표소에 가서 "총학선거는 투표하고 총여선거는 안했었다는 말이 나오냐"는 반문이다.

"63.5%"이 또한 별로 높지 않은 투표율인데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투표를 했다"는 말이 나오다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학생회에 등을 돌리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건 분명 잘못되었지만 딱 부러지지 말하지 못하는건 올해 학생회가 보여준 불신의 싹이 너무 깊기 때문이 아닐까. (양수정 기자)

함께 사는 사회를 추구하는 국민기업 - 삼성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젊음이 따스한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작은 사랑을 나누는 일 - 참다운 젊음의 몫입니다.

전공 공부에의 몰두, 미래에 대한 준비 -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대학생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을 지나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참된 젊음이라면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따뜻한 사랑, 사회에 대한 진정한 애정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 봅시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일의 꿈을 키워가는 근로 청소년을 위한 야학, 좁디 좁은 운동장에서 웃음을 잃지 않는 고아원 아이들, 당신의 입으로는 험한 것을 드시면서도 자식을 먼저 걱정하시는 양로원의 노인분들 - 모두가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작은 사랑을 나누어 가는 일,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과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젊음이라는 값진 시간을 소중히 채워나가는 가치있는 일이 아닐까요? 삼성은 이웃 사랑의 작은 실천에 앞장서는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94년 11월 김은희사원 (삼성데이터시스템)

SAMSUNG 삼성

동국문학의 현주소 찾기

평론...작품의 의미창조·수필...관조통한 삶의 반성
 아동문학...끊임없는 자기확인·희곡...역동적인 문학체형
시·소설성가에 걸맞게 균형있는 장르별 성과 집적 시급

한국근대문학의 산실인 동국문학에서, 그 빛나는 시와 소설의 위상을 떠올린다면 비평, 수필, 아동문학, 희곡 등 여타 장르의 성과는 이제 막 싹이 트기 시작한 과정에 놓여있다고 말해야 정확한 표현이 될 것이다. 시의 빛나는 전통이나 소설의 성가에 걸맞게 균형있는 문학장르별 성과의 집적은 그만큼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비평, 수필, 아동문학, 희곡분야의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사실 다른 곳에 있다. 비평이 작품에 대한 1차적 평가와 더불어 작품의 미적 가치를 발견하는 창조적인 인식행위라고 한다면, 그것은 창작과 서로 보완적인 사이이며, 나아가서는 작품의 의미창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행위인 것이다. 관조를 통한 삶의 반성, 그리고 자아확인인 그 충언이아말로 주체의 마멸을 겪는 현대사회속의 개인적 위기에 매우 필요하고(수필) 동화가 아이들에게만 아니라 어른들에게 역시 동화적 전환을 통해 끊임없이 자기를 확인하는 데 유용하며(동화), 삶의 미를 행위화시켜 그것을 극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가장 역동적인 문학적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희곡) 시도들은, 오늘날 시와 소설만이 문학의 전부라는 편협한 생각을 버리게 만든다. 이는 물론 산업사회의 다양한 경험이 장르의

분화와 전문성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현실과도 관련이 깊다. 비평의 전통은 아무래도 1920년대 중반부터 카프와 국민문학파 사이의 갈등을 극복하는 절충주의적 문학론을 주창했던 무예 양주봉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주봉은 식민지 말기의 암울한 상황 속에서 소창진평(小倉眞平)의 항거해석을 극복하고, 나아가 종전후에 처한 민족정체성을 고양하기 위해 고도로 실증적인 여석 작업을 통한 항거언어로 방향전환하면서 비평의 전통을 자연스럽게 조연현에게 대물림한다. 해방 이후 격심했던 좌우대립기에 김동리와 함께 민족문학론을 주장하면서 주순수문학의 이론적 기반을 고양하는 데 힘썼던 조연현은 '현대문학'을 주관하면서 새로운 한국현대문학의 전통을 수립하고자 했다. 그는 시의 미당 서정주, 소설의 김동리, 황순원 등과 함께 해방 이후 작고하는 80년대 초반까지 비평계의 명실상부한 수장(首長)으로 동국문학의 범주를 넘어서 한국문학의 발전에 헌신한다. 그밖에 삼석과 중용에 바탕을 둔 정대용, 일제 역동적인 문학적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희곡) 시도들은, 오늘날 시와 소설만이 문학의 전부라는 편협한 생각을 버리게 만든다. 이는 물론 산업사회의 다양한 경험이 장르의

한 정봉래 등이 있다. 60년대에 이르러서 흥기삼(현 국문과 교수)을 필두로 김시태, 조병우, 박진환, 장문평, 최광렬등이 1950년대 동국비평의 전통을 이어받는다. 특히 흥기삼은 감각적이면서도 유려한 문체로 조연현 이후 침체된 동국문학 비평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한다. 70·80년대 중반까지 강상천, 김병택, 유한근, 이태수, 채수영, 김선학, 홍준, 정진재등이 배출되고 특히 김선학, 유한근, 채수영등이 왕성하게 활동을 유지해오고 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는 박해경, 송희복, 한만수, 채명식, 유재용, 황종연, 김춘식, 장영우, 박찬두 등 일군의 이론과 건강 한 문학관을 겸비한 비평가들이 가세하면서 동국문학은 가히 비평의 흥용기를 맞이한다. 그러니까 이들 30대의 젊은 비평가들은 90년대 이후 동국문학의 비평을 통한 새로운 전통 수립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이들이 아닐까 싶다. 수필의 경우, 상대적으로는 문학전통에서 소외되지 못한 점이 있으나 만만하지 않은 내력을 갖고 있다. 이병주(본고 명예교수), 이상보(국민대교수), 이창배(본고 영문과 퇴임교수), 이종찬(본고 국문과교수), 정대영등은 학문의 여기(餘地)로서 깊이 있는 사색의 결정을, 윤형두(범우사대표), 이철호, 유해자,

유필근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동인들이 전문인으로서 지혜로운 집언을 활발하게 발표해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유형두는 범우에세이문고를 꾸준히 발행하면서 한국수필문학의 결집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아동문학의 경우 70년대 등장한 이후 '오세암' '초승달과 밤배' 등 20여년간 꾸준히 동화의 세계를 천착해오고있는 정채봉은 한국아동문학계의 보석과 같은 존재이다. 그는 아이들만의 동화가 아닌, 어른들에게도 생각케 하는 동화에 주력함으로써 아동문학의 영역 확대와 쇄신에 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박춘희, 손복원, 권순하, 엄기원, 조진우, 백미숙 등의 동인이 꾸준히 아동문학의 전통을 축적해 나가고 있다. 희곡문학의 경우, 1950년대 전후 사회의 모순을 고발하는 실험성 짙은 영화로 인해 고전이 되어버린 '오발탄' '임여인간'등을 감독한 유현목(희곡감독), 정일택 등과 한국연극의 독자적인 위치를 고수하면서 '한국현대희곡문학에서 희곡정신의 탄생'이라는 찬사를 듣고 있는 이근삼(서강대 정년퇴임교수)외에, 연극사를 강의하는 장한기(본고 연극영화과 교수), 희곡이론을 강의하면서 '현대희곡교과서를 편찬한 김용우(본고 연극영화학과 교수)가 있

글 쓰는 순서

1. 시
2. 소설
3. 평론 수필 아동문학 희곡
4. 월북작가
5. 총론 -좌담

달 하나 천장에

대학의 정보화



산업혁명에 의한 철도, 항만, 고속도로 등 허부구조의 정비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의 전개를 가능케 하였다. 정보혁명에 의한 컴퓨터의 성능 향상, 통신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기술의 발전에 의한 정보 인프라의 정비로 정보사회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21세기를 불과 몇년 앞둔 우리 대학 앞에 개방화, 세계화, 다양화, 전문화 등 많은 문제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다. 더 나아가 교육에 관련하여 각종 규제에 직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교직원들의 욕구는 다양하고, 그 변화는 급속하게 진행되며, 경쟁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제 급변하는 대학 환경의 변화는 기업가적 행동 유형으로의 변모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으며, 개별 대학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혁신과 비교우위 확보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첫째, 대학은 고유의 대학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에 해당하는 전략과 '무엇을' 의미하는 목표가 서로 연관성을 가져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전략이란 대학활동의 전반적인 범위를 결정하고 그 범위 밖에 있는 환경에 따라 대학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조정·지원하는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성공적인 전략은 대학의 외부환경과 적합성을 이루어야 하고, 조직 구성원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대학의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축적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대학은 정보를 창출하며, 생산성 및 서비스를 향상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정보기술을 활용해야 한다. 이 정보기술은 업무처리 방법은 물론 의사결정 과정이나 경영구조 그리고 구성원의 행동 양식까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학은 전략적 계획에 따라 정보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셋째, 대학의 정보화는 국경의 벽을 뛰어넘는 개방을 가져오고 글로벌(global)화와 로컬(local)화라는 양면으로 전개된다. 정보화란 정보자원을 수집, 가공, 생산, 전달, 교환하는데 정보기술을 응용하는 것이다. 교육측면에서 지역과 세계의 균형을 가져와야 하고, 학생·교수에 대한 국제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며, 적절한 경영시스템을 갖추어야 세계속의 대학이 된다. 이것은 대학의 정보화로 성취될 수 있다.

요컨대, 대학의 정보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이 정보 기술 활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대학은 학생·교육중심으로 변신(Student·Education Driven Transformation)을 해야만 한다.

이영재

경성대 정보관리학과 교수

문학단신

◇참사랑 섬터듬기 안혜경콘서트

여성문화예술기획은 '참사랑 섬터'를 즐기 위한 기념마련 공연으로 '안혜경 콘서트'를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라이브스극장에서 개최한다. '참사랑 섬터'는 송탄지역의 기지촌여성들과 그들의 아이들이 놀이방과 공부방 운영, 어머니들의 상담과 교육을 맡고있는 공간으로 재정과 인력부족의 어려움을 함께하기 위해 공연이 마련됐다.

안혜경은 '92년 보다 전문적이고 대중적인 여성문화예술기획의 필요성에 의해 '여성문화예술기획'의 설립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만든 노래 중에서 환경노래와 여성노래를 모아 음반으로 출판한 바 있다.

이번콘서트는 '누나생각' '담뽀' 등의 동요와 '침묵의 봄' '아는나 내말' 등의 환경·여성노래, 신곡 '7년길 멈추고' 등으로 구성되어 초대기수로 박은옥, 권진원, 안치환 등이 참여. 연주와 노래는 '사랑과 나무'가 맡는다.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대학로 라이브스극장/문의는 762-6048/입장권 구입은 본사 문화부

◇동화작가 정채봉(국문 75졸) 동문을 만나 '스무살 어머니' 이어 '초승달과 밤배' 3부 발간예정 '어린이 골목속에 갇힌 동화를 광장으로 끌어내고 싶었다'



탁해지면 맑은 물을 회구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동화같은 세상이 와서 내색이 신기할 것이 없게되면 좋겠다"고 말한다. 정채봉동문은 73년 '동아일보'에 '꽃다발'로 등단하여 '물에서 나온 새' '초승달과 밤배' '느낌표를 찾아서' 등 수많은 작품을 출간했고 열 마진 발간한 '스무살 어머니'라는 수필집으로 많은 이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정채봉동문이 '독과점'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생각하는 동화'는 이미 10권이 출간됐다. 현재는 '현대문학' 지난 4월호에 연재가 끝난 '초승달과 밤배' 3부 발간준비를 하고 있다. "중전까지 아동문학에 국한되었던 동화의 영역을 '생각하는 동화'로 인

해 성인까지 확대하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에 대해 정채봉은 "장르가 독자를 구획시켜서는 안된다"고 얘기한다. "동화라던 어린이 전용으로 담겨 있어왔다. 담을 허물고 어린이 골목속으로 잠깐 동화를 광장으로 내놓는 역할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정채봉은 '아동문학'이 아닌 '동화작가'로 불리우길 희망한다. 동화를 쓴다는 이유때문일까, 나이를 분간하기 어려운 동안인 정채봉동문을 바라볼때 "그의 영혼까지 순수하다"고 얘기하는 세간의 평을 실감할 수 있었다. "어릴때 지란 환경이 커다란 영향을 미친것 같다"고 말하는 정채봉은 평균치적인 시골벽촌에서 자랐지만 작은 돌출

을 보고 미세한 바람을 느끼기도 했던 평범치 않은 삶을 보았다. 이러한 것은 수필집 '스무살 어머니'에서도 읽을 수 있는데 정채봉은 "수필의 특성상 처음과 끝이 나를 벗어날수 없기 때문에 수필집을 내면서 가장 속스럽고 내자신이 고스라리워진다"고 털어놓는다. "동대에서 글쉴때나 소문나면 곧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진다든 얘기와 별로 글을 잘 쓰지 못했어도 큰소리치고 다닌 사람이 많았을 만큼 그때는 자부심이 대단했다"고 회고하는 정채봉은 화창시절에 대한 기억을 늘어놓는다. "신입생 백일장때 고전소설을 가르쳤던 김기동교수가 양동이에 막걸리 한말을 붓고 시범으로 마셨던

일, 도서관에서 싸운 도시락을 난로 위에 데워 먹던 일하며 버찌따리 나무에 올라갔다가 옷이 찢어진 일 등....."

자신은 금광을 발견한 광부로 열심히 곡괭이를 휘둘러 금이 있는지 여부를 감별하는 일은 읽는이의 몫으로 남기고 싶다는 정채봉동문은 "짧은 글과 그림으로 이뤄진 지 금까지 형식을 지양하고 소설 '어린이 왕자'와 같은 영양있는 동화를 쓰고 싶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힌다.

글쉴거리를 찾기위해 평상시에도 늘 관찰하고 생각하며 산다는 정채봉동문은 작은것을 넓혀보려하는 작가다. "모래 한알, 풀 꽃 하나에서도 충분히 지구를 볼 수 있다"

문득 '사소한 것이 소중한'다는 그의 동화 한편이 떠오른다. "평범한 생활을 즐기는 것 곧 적은 기쁨을 알아볼이지. 느낌표가 그치지 않아야 해. 다슬기의 감칠맛, 삼재한 해바라기, 기막힌 노을, 총총한 별빛....."

(김소영기자)

나, '뉴에이지'로 다시 태어난다



이제, 한 세대가 시작되는
 진원지는 나
 나, 뉴에이지로 다시 태어난다
 신세대 겸용샴푸
 뉴에이지

신세대 겸용 샴푸 '뉴에이지'

제일식품 ● 멀티빙원

You & I

우문
 동국대



세인세상 생활사업부

■ 뉴에이지를 만날 수 있는 곳 YOU & I Tel. 268-1134/제일식품 Tel. 264-0694

학·전·무·대

◆제27대 총학생회장 당선자 안진우(국교 4)군을 만나 "자주적 총장선출투쟁과 재단혁신 불가피"



제27대 총학생회 정·부회장으로 안진우(국교4)·곽유찬(야간영문3)조가 당선됐다. 이에 이들을 만나 소감과 함께 내년 학생회 사업운영방안들을 들어보았다.

- 제27대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된 소감은.

= 우선 선거에 참여한 모든 학우에게 감사한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이 낮았던 것이 학생회가 올바르게 서있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나가겠다.

-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범중국 구교운동은 재단개혁과 더불어 본교의 개혁안으로 정리될수 있겠는가.

데. 이 운동을 풀어나갈수 있는 방안은.

= 기간의 학원자유화투쟁이 쟁취와 합의의 투쟁인 반면, 그 합의한 것을 제대로 받아안지 못했다. 이제 동국대를 살리는 것은 학생들의 힘만으로는 안된다는 한계선을 명확히 그어내고, 교수·직원들과의 연대를 이끌어 내야 한다. 그러나 그이전에 학생들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학생들이 변화해야 한다. 학자투를 해나가면서 학교에 대한 여러 문제의식들을 공유하고 그것으로 학생들의 구체적인 삶까지 변화해야 진정한 개혁이라는 것이 가능하다.

범중국 구교운동은 재국주의를 과감히 청산하고 민족정신과 민족자본으로 세워진 민족동국대학교를 살려내는 것이다.

동대인다운수있는 민족정신을 배우는 학교로 되살리는 것이며 이것을 위해 자주적 총장 선출투쟁과 재단혁신은 불가피한 것이다.

- 현재 총장선출을 위한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학생대표로서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지.

= 재단, 교수간의 총장이 아니라면, 또는 학생들간의 총장이 아니라면 제주체의 참여는 반드시 보장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능·비리·부정으로 점철된 총장이 뽑혀서도 안되며, 교수·직원·학생 모두를 안을수 있는 총장이어야 한다.

- 이번 제27대 총학생회 선거과정을 평가한다면.

= 이번 선거는 과열·비방선거 또는 바람몰이식 선거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아쉬웠던 점은 올해의 총학이 학우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지 못했던 것처럼 선거에도 관심이 적은 것이 투표율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 차기 총학생회를 이끌어가기 위한 앞으로의 각오는.

= 학생회 사업을 하는 일꾼들이 먼저 변화하는 학생회를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과대와 과학생회장들이 변화해야 한다. 직접 만나면서 정책을 풀어나가는데, 학우들과 함께하는 학생회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유리 기자)

총장선출 직원대책위 구성

"교수들만의 투표는 학교 대표할수 없어"

직원노동조합(위원장=김윤길 이하 노조)은 지난 10일 노동조합 비상총회를 열고 "민주적 총장선출을 위한 직원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총장선출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열린 이날 비상 총회에서는 각 행정부서별로 그동안 진행되어온 분임토의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학생처 장은, 출판부 현명근 직원들이 총장선출에서의 직원참여의 당위성을 밝히면서 "우리학교가 진정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총장선출에 직원이 학교구성원으로 참여하자"고 역설했다.

또한 조합원이 아닌 관리처장, 교무부처장, 공보부장등 처과장 직원들이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마치고 비상총회에 참석해 "교수회만이 불

은 총장은 교수회장일뿐 학교를 대표하는 총장이 될수 없다"며 "직원들도 당당하게 힘을 합쳐 총장선출에 참여하자"고 말해 처과장급 직원들도 노조와 함께 할 뜻을 밝혔다.

한편 김윤길노조위원장의 제안으로 전체직원의 동의를 얻어 발족한 '민주적 총장선출을 위한 직원비상대책위원회'는 김윤길노조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김청옥(관재과), 김명숙(경영대학원)부위원장 및 이철교사서과장, 황태열체육부장, 신상규학생과장등의 과·부장단과 전임 노조위원장인 이근태(공관위), 문옥래(구매과), 장운(학생과)등을 대책위원으로 하고 향후 총장선출에 관한 전체 직원의 뜻을 대변하고 교수회 및 학생들과 대화를 추진하게 된다.

전체 직원회의를 겸한 이날 비상총회에서는 결의문을 통해 △총장선출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학사업무에 혼란을 초래하고 대학행정의 질서를 흐트리는 일체의 요구와 압력을 거부하며 총장 인후보의 뜻을 갖고 있는 보직자들은 현 보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90년도 선출방식을 고수하려는 교수회의 현 일장이 대학의 민주화를 후퇴시키고 학내 구성원의 화합을 저해하는 것을 지적하며 교수회 단독선거를 명백히 반대하고 △이번 총장선출과정중을 마감한 직후 재단, 학교당국은 물론 학내 재구성단체가 향후 비합리적인 총장선출제도의 마련과 정착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제의했다.



◆지난 13일 경희대 대운동장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준비위원회는 '민주노총준비위원회'의 발족을 선언했다.

전국노동자대회 3만운집

민주노총준비위원회 발족

'민주노총건설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가 지난 13일 경희대 대운동장에서 3만여 노동자·학생들이 운집한 가운데 개최됐다.

주최측인 민주노총건설추진위원회(공동대표=양규현등 4명)는 '건설 민주노총, 광우 사회개혁'의 구호를 내걸고 이날 '민주노총준비위원회'의 발족을 선언했다.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양규현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과거 노동운동의 한계를 냉철히 분석하여 1천만 노동자의 열망을 담아 노동운동의 새 역사를 창조하자"며 △제2노총의 건설이 아닌 진정한 노동자의 조직을 만들자 △민주노총의 강화를 통한 산업별 노동조합건설을 정취하자 △김영삼정권에 대응하는 노동운동의 성과를 모아 정치세력화하여 조국의 발전·통일에 기여하고 민중연대투쟁을 해나가자등의 기조를 밝혔다.

이날 노동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노동계의 여러문제를 해결하기위해 △95년도 임금·단체협상및 사회개혁투쟁 △노동법 개정투쟁 △기

업별 노조체계의 타파 및 산업별노조 건설투쟁등의 추진을 다짐하고 전국노총의 통합제를 거부했다.

한편 대회를 마친 노동자 및 학생은 경희대에서 청량리역까지 약 1시간동안 시가행진을 벌인뒤 자진 해산했으며 경찰과의 충돌은 없었다.

사회과학연구소 개소

사회과학연구소(소장=정용길·정치외교학)은 어제(15일) 동국관(L515)에서 민병천총장과 사회과학대 교수, 대학원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소 개소식을 치렀다.

3세기 고분군 발굴

경주캠퍼스박물관(관장=황상주·미술학)은 지난13일 황성중 고분군 유적발굴조사를 마쳤다.

경주중심지역중 3세기무덤의 대규모 발굴조사로서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진 이번 발굴조사는 지난 8월 17일부터 실시됐으며, △유구-

토방묘, 목관묘, 옹관묘등 49기(총) △토기-와전토기, 도질토기, 영질토기등 △철기 △장신구들이 출토됐다.

한편, 황상주 관장은 "이번 발굴조사는 신라묘역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제공되었고, 조사한 지역외에도 주위에 많은 유적이 밀집분포한 것이 확실하므로 앞으로 이지역 문화유적보존에 더욱 세심한 배려를 하겠다"고 이번 발굴조사의 의의를 밝혔다.

농경과 교수채용문제 일단락

농업경제학과 교수채용공고 문제가 교수측과 학생측의 일부 합의에 의해 일단 마무리되었다.

지난달 교수채용공고가 나간후 학생회 신하 대책위원회(위원장=박상규)는 교수채용공고의 파생문제에 대해 농경과 교수측과 1·2차면담을 가진후 비상학생총회를 열고 질의서를 교수측에 전달했다.

대책위는 교수측의 답변이 늦어지자 지난 10일 결의대회를 가지려했으나 10일 오전 교수측이 답변을 통보하여 95년도 1학기 교수채용을 95년도 2학기로 연기하는 사항만 합의, 채용분야는 추후에 계속 토의하기로 결정했다.

◆제10대 총학생회장 당선자 김나영(교육 3)양을 만나 "여학생 소모임중심으로 단위건설에 주력"



제10대 총학생회 후보자로 단독출마했던 김나영(교육3)·이운수(법2)조가 당선어 확정됐다. 이번 당선소감과 차기 총학생회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 제10대 총학생회장에 당선된 소감은.

= 선거캠페인에서 접어들면서 총학생회 선거투표를 자체에 급급한 모습이 보여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으나 총학생회장에 당선된 투표율로 당선돼 기쁘기도 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생각하니

불안하기도 하다.

- 제9대 총학생회를 평가해 보았을 때 미비한 점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에 대한 보완책은.

= 단위별로 여학생회가 꾸려지지 못한 기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출발했기 때문에 제9대 총학생회의 사업은 이번이 트집이 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성문제를 '성'에만 한정시켜 생각하기도 했다.

따라서 제10대 총학생회는 각 과나 동아리에 있는 여학생들의 학회나 소모임을 중심으로 연석회의를 열어 대화하는 총학생회의 모습을 통해 단위건설에 주력하겠다.

- 대화하는 총학생회가 되기위해 정기적인 토론의 장을 만들고 게시판 설치를 공약사항으로 했는데 이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은.

= 제9대 총에서 기획한 '자리 찾기' 등의 간행물을 통해 모니터모임을 열고 학교내 대학원 페미니즘 분과나 여성단체에서 강사를 초빙해 여학우들과 전 동학인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대화의 자리를 만들겠다.

또한 토론에서 나온 이야기를 알리고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눈에 보이고 들을 수 있는 게시판 뿐 아니라 간행물을 통해 지면상으로도 일체화시키겠다.

- 지금까지의 총학생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려면.

= 단위건설이 되지 않아 동아내에 여성운동이 침체되고 여학생회가 자기 색깔을 찾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여학생회가 존재해 여성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는 개념은 있었으나 충분한 내용을 담아 내지 못해 여학생들에게조차 외면받기도 한것 같다. 여성문제만 다루지 않고 '운동'과 남성에게 소외당하지 않는 여학생회가 필요하다.

- 앞으로의 각오는.

= 발로 뛰어야겠다. 많은 학우들을 만나 얘기고 고민할 수 있도록, 또한 내 자신이 발전할 수 있는 자세로 인해 화살장에 여성운동관매대 설치 등 기본적인 사업부터 차근차근 해나갈 각오다.

(박주영 기자)

Advertisement for GoldStar featuring a man speaking at a podium. Text includes '60%의 과장은 신세대!', '백일째 만남'으로 가수왕에 도전한다., and '새로운 금성, 새로운 사람들이 만들어갑니다.'

Advertisement for GoldStar featuring the slogan '젊은 금성, 젊은 마인드' and 'New...ing GoldStar'. It includes promotional text about a contest and the company's vision.

우리말 바로 알고 바로 쓰기

'의' '으로부터' 등 일본·영어식 언어종속 심각 바른 국어사용으로 겨레정신 살려야

세종대왕 때의 최만리도당은 철저한 모화사대주의 사상으로 훈민정음을 부정했는데, 현대판 최만리도당은 철저한 친일, 친미사상으로 국어를 잃어 영어에 종속시키고 있다.

출근하는 시간, 귀성하는 길이라고 하겠지만 '동고의 시간' '출근의 시간' '귀성의 길'이라고는 안할 것이다.

는'이라고 고쳐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언어에 종속한 말

△1 타고난 △2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국민교육헌장)

①·②은 팔의 상·하박골을 바르게 맞춰 놓은 것같은 구조조. '의'는 일본말식 속격조사다.

'저마다 타고난 소질을 개발하고'라고 해야 국어다워진다.

△한국방문의 해 (94년)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정한 표어

일어식 속격 조사 '의'를 쓴 일어식 표어다.

이 표어를 지은 사람도 등교시간, 출근시간, 귀성길을 등교하는 시간,

길을 물을 때 '이게 어디에의 길입니까?' 하고 대답할 때 '대전의의 길입니다.' 하면 그사람을 누가 한국인이라고 할 것인가?

△새로운 도약의 길 (1993, 대전 박람회 주제)

길을 물을 때 '이게 어디에의 길입니까?' 하고 대답할 때 '대전의의 길입니다.' 하면 그사람을 누가 한국인이라고 할 것인가?

△새로운 도약의 길 (1993, 대전 박람회 주제)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대통령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4항

영어를 중3 학생 만큼만 아는 사람이라면 밑줄 그은 부분이 영문 직역투라는 것을 곧 알 것이다.

나라 말신이다.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이

△국민에게서, '국민헌터서'로 고쳐야 한다.

△피의자가 경찰에 의해서 연행됐다. (고철이 때 면연한 신문공, 방 송말) 영어의 by구문식 표현이다.

'피의자를 경찰이 연행했다' 또는 '경찰이 피의자를 연행했다'로 고쳐야 한다.

△철수에 의해서 바위에 구멍이 뚫렸다.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글학회, 교육부에 계신 국어학 교수들께서 지으신 교과서에 있는 예문이다.

세종대왕께서 살아 계셨더라면 기절납담을 하셨으리라.

'철수가 바위에 구멍을 뚫었다'고 하는 것보다 자연스러운 표현이라는 설명까지 곁들였다.

△대통령은 국민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김영삼 대통령발표)

영어의 기초지식을 지닌 학생이면 From구문 직역형 표현임을 곧 알 것이다.

'으로부터'를 빼어버리고 '대통령은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면 손색이 없다.

△신문 역시 광고주의 압력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조선문 사설)

'신문 역시 광고주의 압력을 피할 수 없다'로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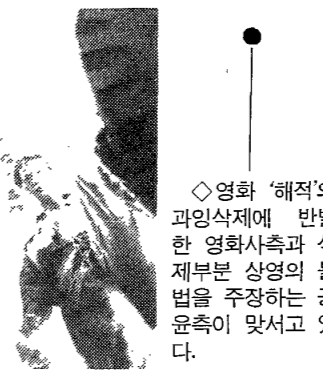
현명한 국민중에서 학교교육을 모르고 늙은 분들이나 국민학교 3·4학년 학생에게서는 위에 든 보기 같은 과장망측한 말을 들을 수 없다.

이 수 열 (국어학자·우리말 우리글 바로 알고 바로 쓰기저자)

영화의 패러독스

영화 '해적' 공윤심의 파동

사전심의 '가위질' 횡포 영화사측 반발 시대·가치관 변화에 적용할 제도마련 필요



◇영화 '해적'의 과잉삭제에 반발한 영화사측과 삭제부분 상영의 불법을 주장하는 공윤심이 맞서고 있다.

영화 '해적'을 둘러싼 공론과 영화사의 시비가 영화계안에서 시끄럽다. 시비의 발단은 영화사측에 의해, 공윤이 가한 화면의 과잉삭제에 대한 영화사에 납득하지 못한 데에서 시작한다.

이 수 열 (국어학자·우리말 우리글 바로 알고 바로 쓰기저자)

적인 대사 일부를 삭제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정은 사계의 정면으로 구성된 공윤의 다수의 심의위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결정이다.

공윤은 '해적' 사건은 그러한 공포감이 이 강한 반발심으로 이어진 사건이다. 공윤은 영화 '해적'을 심의한 결과 조흔한 폭력상장 장면과 반사회

◇극단 민에 월복작가 창작극 '어머니' '산(山)사람들' 공연 힘겨운 삶속에도 따뜻한 정 나누던 우리네 모습 그려 원작자 이태준, '단편소설의 완성자'로 뒤늦은 주목받아

'전통 예술의 현대적 조화와 연극을 통한 인간성 회복'을 표조로 하는 극단 민에는 월복작가 창작극 부활시리즈 '어머니'와 '산(山)사람들' 무대에 올랐다.



◇'산사람들'을 화전을 일거 하루를 연행해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1925년 '조선문단'에 '오몽녀'로 등단, 박태원 이희석과 '구인회'를 조직하기도 하고 '문장'지 편집자, 문학가 동맹 부위원장을 맡기도 했던 이태준은 '46년 월복, '88년 월복'작가 작품에 대한 해금조치이후 주옥같은 수많은 그의 작품들이 문학계의 주목을 끌며 뒤늦게야 새로이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일상의 삶을 그리고 있다.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 기름장수로 평생 고생하신 어머니를 편히 모시기위해 많은 빚을 진 만기, 그 빚을 갚기위해 외삼촌의 권유로 부

자식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준다.

무대위의 조명이 꺼지고 희미한 속에서 한 남자가 거울에 걸려있던 속시계를 때내어 허공에 이미 국이 시작된다.

다시 무대가 환해졌을 때 벽시계가 없어졌음을 알게된 관객들은 저당잡힌 시계보인 관

객들은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김소영 기자)

다시 무대가 환해졌을 때 벽시계가 없어졌음을 알게된 관객들은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다시 무대가 환해졌을 때 벽시계가 없어졌음을 알게된 관객들은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다시 무대가 환해졌을 때 벽시계가 없어졌음을 알게된 관객들은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다시 무대가 환해졌을 때 벽시계가 없어졌음을 알게된 관객들은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다시 무대가 환해졌을 때 벽시계가 없어졌음을 알게된 관객들은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다시 무대가 환해졌을 때 벽시계가 없어졌음을 알게된 관객들은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최경민 (59)

Advertisement for 'The Pirates' movie, featuring a large '메이리' logo and text about the film's success and the director's vision.

Large advertisement for Dongguk University (동국대학교) featuring a grid of admission information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Business Administration, Education, and Law.

김추일 비록 저 높은 하늘이니
신, 악마, 범천, 제석이라
하더라도, 모두 자신을 이기는 사람을 이기
지는 못한다 (범구경·술천품 285절)

東大新聞

발행인: 김경환
주필: 이이익
편집: 이이익
출판: 이이익
인쇄: 이이익
판매: 이이익

편집부: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 (2220-3492)
780-714 경북 경주시 석강동 707 (2770-2067)

제 1163 호 (주간) 1964. 1. 11 등록번호 다-10 1965. 10. 13 제3종우편물(가)급인가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4년(불기2538년) 11월 23일 (수요일)

장내순씨 12억 상당 임야기증

병원 건립·장학사업 당부



독실한 불교신자인 장내순(70·서울 성북구 장위1동) 할머니가 후학양성을 위한 발전기금으로 써 달라며 시가 12억원 상당의 임야 4천평을 본교에 기증했다.

지난 18일 총장실에서 임야 등기를 기증하고 민병천(정치외교학) 총장으로부터 감사장 및 우환참정하신 상자를 수여받은 장내순 할머니는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다"며 "자신을 대신해 임야에 병원을 건립하거나 장학사업으로 써 달라"고 당부했다.

장할머니가 기증한 임야는 충남 아산군 영인면 신운리 소재로 야채장사, 밭장사 등 30년전 행상을 하면서 장내순할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으로서 평소 장할머니가 다니던 수원일 효성스님과 의논이후 본교에 기증하게 된 것이다.

한편 본교에 기증된 임야는 현재 공장부지로서 이후 구체적 논의를 통해 병원을 짓거나 기타 장학사업에 쓰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장내순할머니의 임야기증에 관해 학교의 한 관계자는 "불자들이 학교발전을 위해 계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며 "장할머니가 평생 동국한 방편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보상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판권기사 8면)

신입생 입학시험 1월 9일

등록포기각서등으로 합격자등록 수월

95학년도 본교 신입생모집을 위한 면접고사가 특차모집 오는 12월 29일, 전기모집, 내년 1월 9일에 각각 실시된다.

이번 입시에서 본교는 대학본고사로 서울캠퍼스 지원자를 대상으로 '논술'고사를 실시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계열과 다른 계열에 지원시 감점처리하던 작년과는 달리 예·체능화제학과 지방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계열에 구분없이 교차지원이 가능하고 나머지 계열은 교차지원을 할 수 없다.

서울 캠퍼스 10개학과(철교, 국문, 영문, 법, 경찰행정, 경제, 정보관리, 전자공, 컴공, 건축공) 63명, 경주캠퍼스 2개학과(한의예, 의예) 13명을 뽑는 특차모집은 12월 20일부터 원서교부를 시작해 △원서접수는 12월 29일이며 12월 31일 이전에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총 4천7백24명을 뽑는 전기모집은 오는 12월 20일부터 원서교부를 하고 △원서접수=95년 1월 2일~4일 △예비모집=인문·자연계(서울 1월 8일, 경주 1월 9일), 예·체

능계(서울 1월 7일, 경주 1월 8일) △대학본고사=95년 1월 9일(서울 캠퍼스) △면접고사=95년 1월 9일이고 1월 12일부터 1월 15일까지 논술고사 체점을 하여 내년 1월 25일 이전에 합격자 발표를 한다.

한편, 예·체능계 실기고사는 △체육교육과=95년 1월 8~9일 △미술학과=95년 1월 10~11일 △연극영화학과=95년 1월 9~11일 경주캠퍼스 △국악과=95년 1월 10~11일 △사회체육학과=95년 1월 10~11일에 각각 실시한다.

면접고사가 타대학과 달리 복수지원이 많아 미등록자 증원이 힘들었던 작년과는 달리 올해엔 20여개 대학과 같은날 면접고사를 실시하고, 합격자와 예비합격자는 함께 발표한 후 '95년 2월 4일 3시 예비합격자의 등록희망일이나 등록포기각서를 제출해 해 '95년 2월 6일 1차 추가합격자를 발표하고 이후 2차부터 추가합격자는 개별통보하는 등 합격자 등록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규교원 총3백54명 응모

경쟁률 평균 7대1

'95학년도 1학기 신규교원 초빙에 총3백54명이 응모해 오는 12월 6일까지 화과심사에 들어간다.

서울캠퍼스 38명, 경주캠퍼스 41명의 신규교수를 초빙할 계획으로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16일 마감된 이번 신규교원 초빙에 서울캠퍼스 일반계열에는 △불교이동학과=1 △국악과=9 △인문과=3 △국사학과=3 △화학학과=16 △생화학학과=15 △전산통계학과=1 △전자계산학과=6 △경영학과=13 △정보산업학과=2명으로 응모현황이 집계됐으며 한의학과 1명, 의학과 14명과 포항병원 17명 등 의학계에 총 32명이 응모했다.

이번 신규교원은 12월 6일까지 화과심사를 마친후 총장 및 학과장 등 관련인사와의 면담을 거쳐 재단이 사에서 최종 결정해 초빙하게 된다.

학생처장·문과대학장 사표수리

지난달 31일 있었던 국문과 사건에 대한 도의적 책임으로 부총장 이하 모든 보직교수들이 사표를 제출했으나 학생처장과 문과대학장의 사표만이 지난 21일 수리됐다.

한편 이부대학장은 병환으로 사표가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69명이 지원한 경주캠퍼스 일반계열에는 △불교이동학과=1 △국악과=9 △인문과=3 △국사학과=3 △화학학과=16 △생화학학과=15 △전산통계학과=1 △전자계산학과=6 △경영학과=13 △정보산업학과=2명으로 응모현황이 집계됐으며 한의학과 1명, 의학과 14명과 포항병원 17명 등 의학계에 총 32명이 응모했다.

이같은 신규의 주체성은 선덕왕대의 고승 자장에게서도 잘 나타난다. 자장은 울산 동시에 실 천적인 화엄신앙이었다.

그런 자장이 문수성지로 널리 소문난 중국 오대산을 참방코자

전학과 대상 계열군통합추진

95년 교육과정은 현행대로

교무처(처장=정병조·국민윤리)는 본교 학과·계열군 통합작업과 관련해 '95학년도 교육과정을 현행대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교양교육과정은 매 해마다 부분적 개정이 되고 5년마다 전반적인 개정이 이루어지는데 개편시기를 맞아 현행 교양교육과정은 대학구성원의 다양한 요구와 사회적 변화에 대처하기에 미흡한 점이 많고 또한 95학년도에 있을 대학총합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전면적인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교무처는 올 7월부터 '95학년도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개선방안 연구'를 위한 교수 연구팀을 구성해 전면적인 교양교육과정의 개편을 시도하였고 그 구체적 실시를 위한 본교 교육시설 및 강의연건 등을 검토한 바 있다.

그러던 중 올 7월 교육부의 '학과 통합으로의 정책대진환 추진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학과 또는 계열군으로의 통합방향이 계획되어 본교의 교과과정개정 유보가 결정된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내용은 "현행의 세분화된 학과구조로는 △세계적 학문 조류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교육과정의 중복

편성 △학문 영역별 폐쇄운영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의 제한 △졸업자의 취업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학과군 또는 계열군으로의 통합을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대학지원정책의 일대진환을 예상함에 따라 본교는 내년부터 '전선통계학군'을 학과군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96학년도에는 학내 여류수업을 통하여 전체학과를 대상으로 학과군 또는 계열군으로서 통합을 추진할 계획을 수립한다.

따라서 본교에서는 학과조정작업과 더불어 교육과정도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므로 학과 통합과 교과과정의 연계적 추진도 구성하고 단과대학별 교육과정개선 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과정을 영구제안토록 결정했다.

보리수

신앙적 주체성

우리나라의 불교역사와 문화에 있어서 신라인들의 주체성은 단연 돋보인다. 그들은 불교를 수용하고 전개하는 과정에서 인도·중국과의 연관 속에서도 철저하게 신라 본위적 사상과 그에 대한 긍지를 잃지 않고 있다.

불교의 본격적인 흥隆에 나섰던 진흥왕은 신라 최대의 국력사찰 황룡사를 세운 다음 이곳에 일장유취의 석가모니불상을 조성해 모시고 있다. 삼국유사에는 이장유취상에 관한 연기설화가 실려 전한다.

인도의 아쇼카왕이 나라 안의 황궁과 절을 모아 석가삼존상을 조성하려다 끝내 이루지 못하자 '인연있는 나라에 이르러 존용이 이루어 질 것'을 축원하면서, 사연을 적은 글과 함께 모형 삼존상을 큰 배에 실어 바다에 띄웠다 한다. 이 배가 1천3백여년을 떠돌 끝에 마침내 신라 남쪽 아곡현 사포(지금의 울산 미포)에 닿음에 진흥왕이 사연을 읽고 금칠을 경주로 옮겨 훌륭한 존용을 완성했다는 것이다. 이 설화에는 신라가 부처님의 탄생지 인도보다 더한 불연국토임을 자부하는 신앙심이 담겨 있으며, 진흥왕의 불교적 위치가 아쇼카보다 더 뛰어나다는 자긍심을 보여준다.

이같은 신앙의 주체성은 선덕왕대의 고승 자장에게서도 잘 나타난다. 자장은 울산 동시에 실 천적인 화엄신앙이었다.

그런 자장이 문수성지로 널리 소문난 중국 오대산을 참방코자

했음은 당연한 일이다. 그는 선덕왕 5년에 당으로 건너가 오대산을 찾았고, 여기서 기도 끝에 문수보살의 진신(眞身)을 친견할 수 있었다 한다.

그런데 한 이승(興僞)의 모습으로 나타난 문수보살로부터 자장은 "그대 나라 동북방 명주 땅에도 오대산이 있고 그곳에 일만수의 문수가 삼주하고 있으니 가서 보도록 하라"는 말을 듣는다. 우리나라 강원도 오대산은 이렇게 해서 자장에 의해 설정된 문수도량이다.

화엄경에서 문수는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이다. 그리고 지혜(prajna) 그것은 곧 실상을 깨달음이며 보편타당한 진리에 대한 인식이요. 그렇다면 자장의 문수보살 친견은 그대로 보편타당한 진리와의 만남인 것이다. 따라서 그런 문수보살이 신라인을 없애 수가 없는 것이다.

신라인들이 보여주는 신앙적 주체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마음 밖에 진리가 따로 없는데 어디 가서 무엇을 구하라(心外無法 胡用別求)'라고 말하며 담 유학을 그만 둔 원효에게서도 나타나고, 천연한 불교문화 예술의 곳에서도 그 향기를 짙게 느낄 수 있다.

국제화, 문화개방 등 이 시대의 이슈에 비추어, 새삼 음미해 보아야 할 한국불교의 신앙적 주체성인 것이다.

李逢春

원광대학원과 학점교류추진

국제부(부장=이원부·정보관리)는 원광대학원과 학점교류추진에 학점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원광대학교는 지난 7월 22일 국내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본교의 학점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으로 15개 단과대와 86개 학과, 5개 대학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점교류가 체결되면 원광대학원생과 본교 대학원생은 상대 대학원의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된다.

국제부의 한 관계자는 "원광대와 같은 불교대라는 특성 때문에 교류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제부는 영문책자발전, 동양대, 서북대의 자비결연을 위한 총장 방문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알림

이번호(제1163호)로 94년 2학기 동대신문은 종간합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제32회 학술상 및 제9회 동대문학상 공모

제32회 학술상 작품모집

본교 학생들의 학구열을 고취하고 학문적 성과를 진작시키기 위해 제정, 일한 수확을 거둬온 본사 학술상이 올해로 3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학술상에도 학문연구에 정진하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로 동국의 화풍을 더욱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분야
인문과학상: 본상 및 가작(본상 50만원, 가작 25만원)
사회과학상: 본상 및 가작(본상 50만원, 가작 25만원)
자연과학상: 본상 및 가작(본상 50만원, 가작 25만원)

◇응모요령
3개 분야 모두 2백자 원고지 60매 내외의 학술논문

◇응모지역
서울 및 경주캠퍼스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심사위원
본사에서 위촉하여 심사작과 함께 발표

◇제출기간
1994년 11월 10일~30일까지

◇입상작 발표
1995년 1월 1일자 본지 지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바람
전화 (02) 260-3491·2

제9회 동대문학상 작품모집

본사에서는 동국의 문학적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내일의 한국문단을 이끌어 나갈 참신한 인재를 발굴하고자 제9회 동대문학상 작품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시 부문: 3편 내외
소설 부문: 2백자 원고지 60매 내외
평론 부문: 2백자 원고지 60매 내외

◇응모지역
서울 및 경주캠퍼스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제출기간
1994년 11월 10일~30일까지

◇시상
시 부문: 본상 30만원 장려상 15만원
소설 부문: 본상 50만원 장려상 25만원
평론 부문: 본상 50만원 장려상 25만원

◇심사위원
본사에서 위촉하여 심사작과 함께 발표

◇입상작 발표
1995년 1월 1일자 본지 지상
※ 제출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 바람.

모니터 요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부문	1. 어학특강	5명
	2. 기능강좌	5명
	3. 도서관	5명
	4. 식당	5명
	5. 기타 매점	5명
	6. 기타 시설	5명
	7. 연구활동 1	5명
	8. 연구활동 2	5명
	9. 연구활동 3	5명
	10. 연구활동 4	5명
	(총 계)	50명

목적 1. 학우들의 요구 직접 수렴
2. 생협의 기초토대인 직접 민주주의 구현의 기초 꾀 자발적 참여, 자신의 의사 반영
3. 모든 사업에 대한 견제와 협조

역할 1. 주 1회 모임을 갖고 1주에 대한 평가
2. 월별/분기별(설문을 통한) 학우 의사 수렴
3. 분기별/학기별 프로젝트 연구
4. 학부위/공관위(향후 생협)에 대한 학우들의 홍보/교육

자격 1. 본교 재학생인 학생
2. 1년정도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자
3. 본 회의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자

혜택 1. 학부위에서 실시하는 특강 무료 수강(임의 조정)
2. 정기 모임시 자료/연구비 지원
3. 기타 지원은 요원 선발후 공지함

모집일차: 94. 11. 23~11. 30.
학생복지위원회

공 고

교수회규정 제 44조, 동국대학교 총장후보추천에 관한 규정 제 13조, 제 14조 및 제 15조에 근거하여 제 13대 총장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 및 입후보자 등록절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다 음

—선거일: 1995년 1월 15일(일)
(선거장소, 시간 및 기타 선거관련 사항은 추후 공고함)
—입후보자 등록
·등록기간: 1995년 1월 3일 부터 1995년 1월 5일까지(09:00~17:00)
·등록장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입후보자 등록 확정공고: 1995년 1월 6일 09:00

※ 입후보자 등록기간 마감전까지는 일체의 사전 선거운동을 금하며, 위반시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총장후보추천에 관한 규정 제 5조에 의거 후보자격 심의시 이를 반영할 것임.

1994년 11월 15일

제13대 총장후보추천선거관리위원회

조대 시 다시 지리산에서

전 남 진 (경주국문 94출·동국문화회 7기)

산이 보이지 않는다
들과 나무와 공기, 소음 몇개만 있다
길에 선명하게 찍힌 세월을 밟고 간다
업은 것과 잃은 것의 차이는 남아 있지 않다
늘어나는 생각과 싸우다
얼마나 더 긴 세월을 보내야
산이 보일까
밤까지 산행하기로 하고
랜턴을 미리 꺼내 불빛을 확인한다
지금은 조그만 불빛만 있다
그러나 곧 길을 보여주는 빛을 만들 것이므로
내가 살아 있고
우리가 살아 있는 까닭이다
산에 길이 있고
길에 산이 산다
길을 가다 보면 산에 내가 있고
내 속에 산이 생긴다
새벽이 저기 길을 만드는 회색작업
거기 우리가 산다

열린 글터

개성있는 목소리를 가진 동대인을 찾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문의는 (02)260-3491-2 (0561)770-2057

노동자대회 통해 새로운 시각 형성
어려운 현실에 관심 가지게

많은 선배들과 함께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경희대에 들어섰을 때 수많은 사람들과 여기저기 흠날리는 전단들은 나의 가슴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다.
대운동장에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온 집안 많은 노동자들과 학생들을 보고 처음에는 어리둥절 해졌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모였을까? 어려서부터 보아온 대중매체에서는 노조를 나쁜쪽으로 많이 보도를 했기때문에 솔직히 이런 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망설였지만 선배들과 동기들의 꼬임(?)에 빠

져 참가한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대회에 왜 학생이 참가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 나에게 있던 거부감이 이 대회에 참가하면서 그런 것들이 사라져 버렸다.
과려한 문선대의 공연과 많은 연사들의 약간의 딱딱하지만 힘찬 연설은 거기 참가한 모든 이들에게 강한 감동과 인상을 남겨주었다. 연사들의 연설은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노조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갈기갈기 찢어버렸고 다시 새로운 생각들이 내머리속에 여지가 아닌 강한 설득력과 올바른 당위성으로

인해 자리잡았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어려운 환경속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것들을 개선하려고 많은 난관과 고통을 이겨나가며 민주노총건설을 위해 피와 땀을 흘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의 권익과 시민의 이익을 위해 앞장서는 노총이 없기때문이다.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고 모순된 사회속에서 대학년을 보내던 나는 이제 노학연대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 방관자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위혁의 주체로서 미래의 노동자인 우리 대학생은 어려운 노동자들의 현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정 수 경 (공과대 컴퓨터)

자유 발언대
학생회관은 쥐들의 왕국
공간부족, 시설낙후 등 문제심각

총학생회 선거를 준비하면서 학생회관출입이 잦아진지도 한달이 되어간다.
올해 동아리연합회의 공간문제에 대한 투쟁을 지켜보면서 막연하게 느꼈던 학생회관의 문제점들이 이제는 피부에 와 닿는 걸 느낀다.
나를 처음 가장 놀라게 한것은 학생회관에서 길러지고(?)있는 쥐들이었다. 이제는 웬만해서는 쥐들을 보아도 그리 크게 놀라지 않을 정도이다.
학생회관은 가장 많은 수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말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학생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출입하고 있다.
현재 우리학교의 학생회관에는 1층에 총학생회실과 총대의원회실이 있고 몇개의 동아리방도 있다. 2층에는 가정교육과 실습실인 연화실이 있고 세미나실, 총학생회실, 동아리방, 3층에는 동아리연합회실, 상설전시장, 동아리방들, 4층에는 방송국과 동아리방들, 5층에는 소극장과 동아리방들이 있다.
그리고 지하에는 동대신문사와 영자신문사, 6층옥상에 백상음원단이 있다.
주로 동아리방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실제로 공간이 매우 부족하기에 세미나실, 공연실 등이 제 역할을 못하고 동아리방으로 쓰여지고있다.
동학의 공간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고질적 현상이지만 특히 학생회관의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다.
그래서 올 1994년 동아리연합회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투쟁을 벌여나갔다. 이에대해서 학교측도-특히 95년 있을 대학평가에 맞추어서-학생회관의 공간재배치에 대해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학생회관은 동아리방들이 모여있는 그 이상을 뛰어넘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상설전시장과 세미나실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 너무 낙후되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전시장, 이곳을 이용하는 단체들이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못했던 것같다.
현재 동아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세미나실도 공간재배치 속에서 꼭 확인되어야 할 부분이다. 동아리방들을 들어가 보면 각 동아리마다 방의 크기 차이가 존재한다. 물론 기간의 활동 속에서 더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동아리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간부족의 문제하에서 어느정도의 규격화는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재배치시 분과끼리 모이게 함으로써 서로의 특성을 활용하게 할수도 있을 것이다. 이공백의 설치의 이야기가 학교측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부분도 공간부족을 최소화하기 위한 좋은 안이라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짚고 싶은것은 처음에도 언급했지만 쥐들이 득실할 정도로 더럽고 낡은 시설과 환경이다. 이제 깨끗한 학생회관의 모습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최첨단의 시설을 갖춘 학생회관 이전에 패적하고 깨끗한 그래서 기본이 좋은 학생회관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 우리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일임을 잊지말자.
김 나 영 (사범대 교육학과 제10대총학생회장)

지나호 동대신문을 읽고

선거, 신문·방송역할 커

지난 제1162호 동대신문은 요즘의 선거열기를 반영하듯이 선거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5년의 경주 선거특집은 서울캠퍼스의 선거특집(제1160호)과는 큰 차이를 볼 수 있다. 우선 지면에서도 그렇고 내용면에서도 차이를 볼 수 있다. 인터넷형식이 주를 이룬 서울캠퍼스의 선거특집과는 달리 구조와 주요공약이 눈에 보이기 쉽게 만들어 인상깊었다.
4면의 음악으로 실린 "선거전·후"에서 서울캠퍼스의 투표 마감 1시간전 투표율이 50%를 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신문의 책임도 있다고 하였다. 선거자금의 축소와 선거열의 축소로 투표율저조는 예상되었던 일이다.
유세취제를 하며 보았듯이 선거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을 투표장으로 끌어오는 것은 선거운동원뿐만 아니라 신문이나 방송의 역할도 크다고 보았다.
매주 신문을 보는 학생들에게 투표율저조라는 기성신문의 보도형식보다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기사를 실었으면한다.
김 집 식 (공과대 산공과 본사모니터)

경주선거특집 적절

지난주 동대신문(1162호)1면, 7면 확대보도면은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와 각과대학장 선거의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투표율과 공약사항등의 기사가 실렸다. 신문의 보도와 같이 투표율이 50%를 약간 넘게 기록했는데 학우들이 학내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무관심한지 여실히 보여준 기사였다. 학우들이 주어진 권리를 하루 빨리 찾아주었으면 한다.
경주 선거특집 후보자들의 약력공약사항을 다룬 기사는 진정한 알권리충족과 선택에 도움을 주는 '보도'의 측면에 일익을 담당했다고 본다.
그리고 여론배치면 '연가'라는 제목의 투고사가 실렸는데 재미는 있었으나 그 작품에서 흥미 이상의 다른 것은 기대할 수 없어서 안타까웠다. 좀 더 신중함 선정과정중 거쳐 작품을 기재 했으면 한다.
또 한가지 개교1백주년 기념사업 기금 기부자 명단이 2면의 반 정도를 메우고 있다. 광고고를 이용해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기사인데, 지면 매꾸기 식의 이러한 기재는 지양 했으면 한다.
김 필 중 (법정대 법학과 본사모니터)

동/문/칼/럼

대학의 지성과 도덕성 결핍증
불교정신으로 나서서 회복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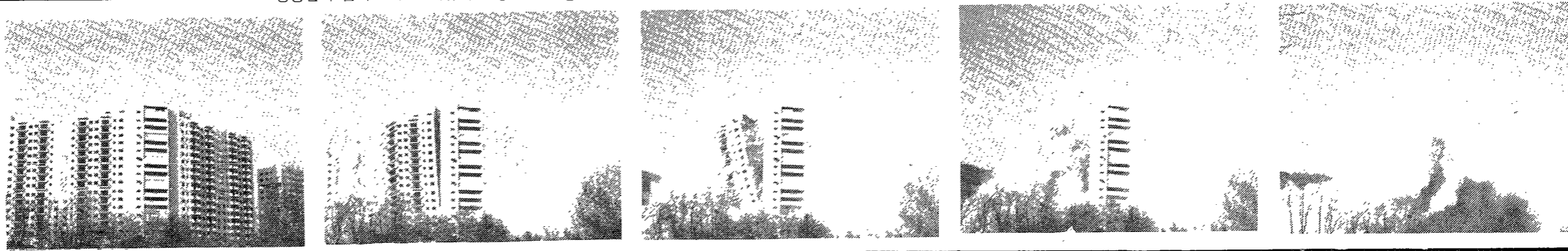
오규석 (한의학 94졸·경남 양산군 기장현의원장)
한나라의 어제를 보러거든 박물관을 찾자
오늘과 내일을 보러거든 대학을 보자고 말해진다. 대학은 시대의 체온계로 나침반과도 같다. 대학은 스스로 역사와 시대의 아픔을 먼저 안다. 그리고 대학은 한편으로 시대의 역사의 웃음을 먼저 피워낸다. 대학은 좁은 현실에서 보다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들을 제시할 책무를 지닌다. 학문사상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도 그 책무의 반사로 요구되는 제도의 보장이 다름니다. 대학자치는 왜 생애했는가? 그것은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외종(外國)을 막기 위해서다. 독일의 훔볼트가 베를린 대학을 설립하면서 총장을 교수회에서 선출토록 했던 전철은 그 대표적인 선례이다. 교육정책과 학사행정 및 재정 인사에 이르기까지 대학에 있어서 오늘날 교수회의 자치역할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학생도 물론 대학시설의 이용자이거나 관리의 대상이 아닌 대학주체로서의 평등권과 함께 교수의 자유와 대등

여기므로 보나 오늘의 대학은 그에서 있어야 할 '제자리'에 제위치에서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의 제자리 이탈은 과연 대학만의 잘못인가 아니다. 대학이 빼앗긴 제자리는 이 사회의 제자리 이탈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이 시대의 모든 사회계층들이 무루 제자리에 돌아갈때 대학도 대학다운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대학이 제자리를 되찾아야만 주체된 대학인들도 누려야할 제자리를 누리게 된다. 내일의 역사를 위하여 오늘의 십자가를 짊어진 대학인들이 더 이상 시대의 속죄양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성과 도덕성과 재구성의 면역결핍증이 오늘의 대학에 더욱 더항력을 떨어뜨리게 하고 있다. 지혜와 자비에 의거한 인간의 자기완성과 불교정도의 이상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불교정신에 일각한 우리 동국인들이 선도적으로 나서 오늘날 실추된 대학의 면역결핍증을 회복해야 되지않을까 한다.

남산 외인아파트 철거

와우!

윤 용 민 (사범대 지교과)



목 먹 골

축하합니다

- D.U.C.A 프로그램전시회가 계산관 2층에서 합니다. 축하합니다!! - 두카를 사랑하는 94재순
■비구니회 기숙사개원식을 축하드립니다. - 불교학생회
■드디어 동대합창단이 정기공연을 하게 되었네요.
■손짓사랑회 9기 수료를 축하합니다. - 감사님 일동
■KCC의 카니발 음향 축하한다. 12월3일. 어디라고? - 88잡은 94기록
■여러분! 기백해 주세요. Youth-Hostel이 방송했습니다. 하하하 - 15기 활우
■나우누리 백상(통신) 12월1일에 작은모임 백상이 드디어 동아리로 승격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 백상지기 올림
■삼유이형(12-4), 선경아(12-1) 생일 축하해. - SK

선영아(11월28일) 생일 축하해 - JOKA

■경문5기 백승권선배(장·의), 아기(다미)백일 축하합니다. 형수님 생일도요. - 경문 후배 일동

■지리교육과 학예지 '지표공간'의 발행을 축하합니다! - '94 일동

■제9 25대 학생회 여러분! 정말로 고생 많았어요. 26대 학생회 단장을 축하해용! - 동수

■2학기동안 과대표로 수고한 우리의 hope(유환)의 생일을 축하하며 그동안 고마웠다. - 화학과 친구들

수고하셨습니다

■석중·유리·주영·수정·소영이형! 1년동안 신문 만드느니라 수고하셨습니다. - 제36기 일동

■1년동안 수고한 과대표 진근아! 수고많이했다. - '94 지교포기

■경인아 수고했다. 내년에도 북음을 날 수 있을까? - 사랑하는 동기 성국

■머릿돌 1년동안 수고했수. - 영?

■올 한해 수고하신 사우회 15대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떨어진 동

■AD-RUSH전시회가 잘 끝나서 기뻐요. 특히 이수형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회계 범수

■CAPS 1년동안 열심히 활동한 회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발고사 잘들보세요. - 장

그리고

■범94 여러분 내년에는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 여러분의 동기

■지리교육과 글패'하구연'이 정기총회를 가졌고, 새로 다시 시작합니다. 무한한 발전이 있길... - 혜

동/약/광/장

■정운(무역 94)이 '군대탈가라!' 팔에 날 파리는. 비오는 날 홀주로에서 미끄러지지 말고 잘 지내라. - OSBSIOS(무역과 Outsider)일동

■"한국고대사연구회" 1년동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군대 잘다녀오시구요. 탈영하면 안돼요. - your 1004

온 방 골

축하합니다

■박상욱, 네 20번째 생일을 백글날만으로 축하한다. 앞으로도 최선을... - 태목

■무정지와 미화의 생일을 축하하고, time4학년 선배님들의 사회생활이 순탄하시길 바랍니다. - time4

■불휘 15기 가장 멋진생일이 생일이 11월19일 이래요. 같은 생일인 진실이가 축하한다. - ?

■세환아, 진식이 생일 축하해! - 지아방 최아

■스무해전 신세계교향곡과 함께 울음을 터뜨린 태영이 오빠의 생일을 축하해요!! - Y-L

■태목, 넌 역시 좋은 놀이다. 20번째 맞는 생일 멋있게 보내길 바란다. 사랑한다. - 친구로부터

수고하셨습니다

■영상 정기전시회(15회)무사히 마쳤걸랑요, 수고 많이한 집행부이 하 선배님·후배님 내년엔 더 열심히...그리고 전시회 찾아주시는 학우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 영상사

■창단기념식 및 졸업생원순회하느라 고생많으셨고 졸업하시는 선배님들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 호우회 15기신배

■여보게 주군! 공연하느라 한해동안 애썼네 - ?

알립니다

■국·경 귀염둥이 효식님께서 군대에 가신다네요. 열심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길 빌며. - 전94 국·경인 일동

■솔메리아 '94 마지막 콘서트가 11월 21일 소강당 I에서 있었습니다. 선·후배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8기

■23일(수요일)원효과 소강당II에서 공개 오페라감상회를 갖습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무료입니다)~87:9기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다. - 필하모니너

■24일 르타렉트 일일호프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학우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로타렉트 일동

그리고

■인혜야, 항상 내옆에 내가 있을 줄을 잊지마. 그리고 2001년 봄은 우리만남. 앞으로도 지속적이길... - 성원

■연신아, 너에게 해줄단한마디 '사랑해' - J-9

■DUCO9기들에게 L.T도 끝났고, 이제 너희들의 1년이 시작되는구나. 내년을 부탁할게. - 8기

■국·경 선거일에 투표하는 자랑찬 동국학우이기를... - 8기

◇조계종 총무원장선거와 이후 불교계 방향

월주스님 향후 4년간 불교개혁 지속적으로 이끌어야

이사회 개편·전입금 확대 기대 속단·학내주체 뜻모아 발전계획 요구 필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지난 2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투표로 끝났다. 송월주스님이 향후 4년간 총무원을 이끌고 나갈 총무원장에 피선됨으로써 불교개혁도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올해 초 서의현전총무원장의 3선연임기도와 정권이 일어난 3·29, 4·10법란을 계기로 불같이 솟아났던 종단개혁은 명실공히 불교의 자주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도한 역사적 흐름의 반영이었다.

정치권력과 일부의 부패정치승들에 의해 장악되어 뒤늦었던 한국불교에 있어 자주화는 민족을 위한 종교로 거듭나야 하며, 민주화는 전종교의 품으로 종단을 되돌려 받고 승가의 정정기풍 수립과 사부대중의 주인된 참여를 이룩하는 절대절명의 과제였다.

전국 사찰에 정권반대의 현수막이 일제히 걸리고, 소장파 노장을 망라한 개혁회의의 구성성원은 이러한 자주화와 민주화를 위한 초석이였다.

개혁회의의 성과를 꼽으라면 가장 먼저 새로운 중핵·중봉의 통과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총무원장에게로의

권력집중이 분산되고 기복신앙으로 왜소화되었던 불교가 21세기 민족종교로 자리매김할 마스터플랜의 광범위한 수립이 보장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특히 새로운 선거법에 의한 중화구성과 총무원장 선출은 과정에서 나타난 폐단에도 불구하고 종단의 민주주의를 앞당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비록 직선제 관철이 안되고 재가불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험악이 노출되긴 하였지만 이는 차기 종단의 과제로 해결할 문제이다.

제도적 개혁이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인적·물적·정책적 개혁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계속적인 개혁의 첫걸음은 바로 이번 총무원장 선출이었다.

각 교구별 직선으로 뽑힌 중화위원과 24개 교구에서 선출된 선거인단이 함께 투표로 선출한 총무원장 선거는 몇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로 개혁을 앞당기는 장이 되었다는 점이다. 총무원장후보로 나선 월주스님이나 월탄스님 모두 공히 개혁의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21세기 문명사의 대전환과

민족통일을 앞 둔 시점에서 한국불교의 나갈 방향을 개혁으로 맞추면서 나름대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못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점이 있지만 이후 극복되리라 본다.

둘째로 선거의 양상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아직까지도 제파와 인맥이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정책선거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물론 두후보자가 같은 문종의 사형사제간이라는 점이 작용한 했지만 '중도온건개혁' '보수라 불리워도 좋다는 차별성'에 진행된 정책대결의 양상은 앞으로 발전전망의 제지 없는 종교집안 안에서 버티기 힘들다는 교훈을 남긴 것이다.

셋째, 선거과정속에서 특이할 양상은 공히 불교자주화를 내세웠다는 점이다. 한국불교의 쇠락이 결국 종교분리의 원인을 지키지 못하고 독재정권과 야합하여 국민의 의사를 저버린데 있음을 이제는 아무도 부인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결론이 이것이 선거에서만 표현되는 빌풍자 공약이라 하더라도 이 속에는 전종교

와 출가스님들의 여망이 '자주화'에 놓여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총무원장 선거가 끝남으로 인해 곧 개혁회의가 해산하고 차기 총무원이 구성된다. 투표가 끝나자 월주스님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화할 조지와 신탄평책을 실시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선거에서의 입장에 관계없이 또 승가와 재가의 구분없이 널리 인재를 등용할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명실공히 새로운 종단이 개혁종단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인적개혁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통일을 여는 불교, 새로운 문명의 시대를 선도하는 불교, 경제적 자립을 갖춘 '생산 불교', 전문인력을 고루 등용하는 불교로 거듭날 것임을 밝혔다. 이는 앞으로 새로운 종단이 이렇게 된다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불교집안 전체가 가야 할 좌표이다. 이러한 좌표를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이 불교계에 있다고 보기는 현실적으로 무리이다. 여기서 우리는 종립대학이 가져야 할 역할을 찾을 수 있다.

조계종 산하에는 현재 20여개의 종립대학이 있지만, 4년제 종합대학은 동국대학

과 유일하다. 한국사학이 처한 현실속에서 나타나는 모순이 동국대학교에서도 관철이 된다. 그러나 차기종단이 시작되면서 종립학교 개혁에 대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전망이다. 재단이사회의 개편이나 재단전입금의 확대가 급속히 이루어지리라 기대는 물론 속단이다. 하지만 동국대학교 차원에서 학교·교수·학생·직원들이 뜻을 모아 학교발전계획을 종단에 강력히 요청한다면 포교의 활성화와 인력개발을 도모하는 종단의 방향과도 일치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불교발전, 차기개혁종단의 사업은 특히 많은 인력을 요구하고 있다. 불교 또한 종교인 바 종립학교에서 배출한 인력을 등용할 것임은 자명한 것이고 가능성은 크다. 그러나 동국대학교의 현재 모습은 이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문제나 종립대학의 특성이 발견되지 못하고 있음이 이를 증명한다.

21세기 민족종교로 도약하기 위한 불교계의 흐름속에 이번 총무원장 선거가 전환점이 되었다면, 종립대학으로서 동국대학교의 전환은 더더욱이 요구된다 하겠다.

정한신 (실천불교승가회간사)

시사 초점

12·12국회파행 해결국면안보여

12·12관련자 처리문제로 국회는 18일 제 정국파행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이 지난 22일 단독으로 국회본회의를 열기로 결정하여 국회는 다시 긴장국면에 접어들었다. 민주당의 이러한 결정은 상임위에서 본격적 법안 심의를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번주말부터 전국 주요 도시에서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다. 또한 이기택 대표는 24일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장외투쟁을 선언할 방침이다.

그동안 여야는 이 문제로 기인된 정국파행상태를 영수회담을 통해 풀자는 방침이었으나 현 상황은 여야가 각각 단독 국회운영과 장외투쟁을 공언하고 있어 강경대치로 인한 정국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영수회담에서 국경전변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한다는 데는 여야가 입장을 같이하고 있으나 회담의제에 관한 견해차가 워낙 커서 영수회담의 성사자체부터 불투명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부)

◇전국대학 총학생회선거 결과 분석

공안파동 후유증으로 선거일정 지연 비운동권 약진속 정치적 쟁점 형성 못해

전국 182개 대학의 새로운 일꾼을 선발하는 총학생회 정·부회장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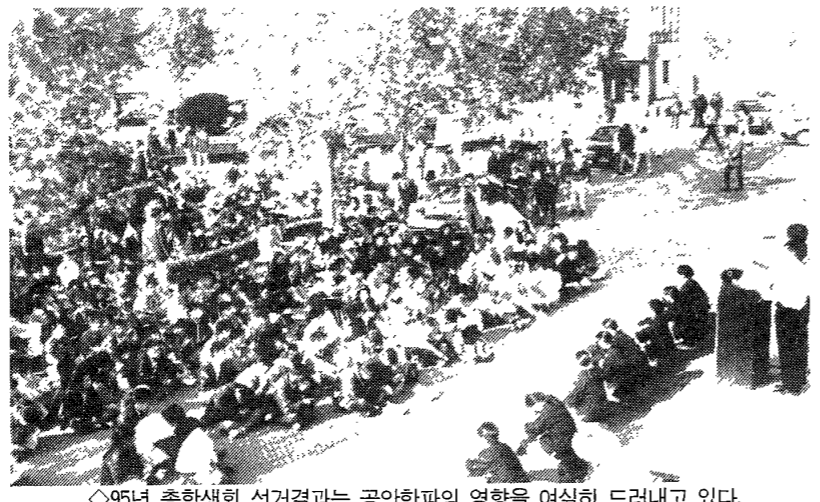
11월 첫주에 후보등록이 마감된 대부분의 전국 총학생회선거는 거의 모든 대학이 오는 30일까지는 투표함을 개봉하게 된다.

95년 총학생회 선거의 대외적 특징은 올 한해 대학가에 물아다친 공안파동에 따른 영향을 먼저 꼽을 수 있다.

박종 총장의 주사파 발언을 정점으로 보수언론등의 집중표적이된 한총련으로 대표되는 학생운동진영의 학생회 선거공약이 학생 대중들의 평가를 받게되는 가 시적 계기가 대내적으로는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 커다란 호응을 얻고있는 경실련 학생회 및 비 운동권 학생회의 진솔정도여부가 관심의 초점으로 모아졌다.

또 예년과 다른 올해 학생회 선거의 모습은 공안파동의 후유증이라 할수 있는 기존 학생회의 위상 위축으로 인한 학생회 선거일정의 지연을 들수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전국 대학 총학생회 선거의 결과는 서울·경기지역의 경우 경기대, 동국대, 성균관대, 상명여대등의 대학이 NL(민족해방)계열 총학생회가 당선



◇95년 총학생회 선거결과는 공안파동의 영향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되었으며 항공대, 인하대, 수원대등의 PD(민중민주)계열, 외대용인캠퍼스등이 비 운동권 총학생회가 당선되었다.

전국적인 분포를 살펴 볼때 현재 집계 가 끝난 62개교중 △NL계열 40개 (65%) △PD계열 6개 (10%) △21세기 진보학생연대 3개 (5%) △비운동권이 13개 (21%)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의 총학생회 선거결과를 종합해볼때 작년 학생회 선거에서 보여졌던 비 운동권 학생회의 약진과 전체적으로 공약사항에 있어 정치적 사안보다 학내복지사안이 중점적으로 개선되고있는 상황을 들수 있다.

다양한 학생대중들의 이해와 요구, 정치적 사안에 대한 무관심과 희석화등 변

화된 시점에 따른 결과로 분석되는 이러한 현상은 정치적 쟁점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필연적일수밖에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공안정국의 여파로 올해 총학생회 선거에서 고전하리라 예상했던 운동권 학생회가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침체의 우려를 씻어냈다.

학생운동의 총괄적 평가의 장이 되리라는 예상속에서 '주사파 파동'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논쟁이 학내에서는 재현되지 않은것이다.

이는 학생운동진영에서 학생회의 역할과 대중을 각 부분의 주체로 세우려는 다양한 논의들과 새롭게 제기되는 변화의 노력들이 이른바 '심판장'이 되리라는 올 총학생회 선거에서 유효한 결과를 낳게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 및 전국 대학선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올해 전국 총학생회 선거의 모습은 △순추 전국시대를 방불케하는 각계각색의 학생회 등장 △교육시장개방을 학내사안위주의 공약제기 △후보자나 후보자가 속한 조직에 대한 이미지가 선거의 당락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재환기자)

동막로 물이 투표

느즈막 선거분위기 가 웬 썰렁(?) 아침 저녁으로 목이 터져라 "열심히 하겠습니"라고 외치는 후보자들의 각오와 다짐이 온방골에 울려 퍼지고 있다. 그러나 후보자들의 열기와는 상반되게 학생들의 반응은 차분하다 못해 냉랭하기까지 하다.

지난 10일 단대학생회 선거는 예상을 훨씬 상회하는 투표율을 기록하며 당락을 결정했다. 불교문화대 82.3%, 상경대 80.7%, 의과대 87.7%의 투표율. 숫자상으로만 본다면 많은 학생들이 각 단과대 일꾼들을 찾는 일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투표 당일, '깨끗한 선거'를 다짐했던 선거유세 때와는 달리 투표장 주위는 물불 가리지않고 투표용 울리기에 급급한 선거원들의 열면 경경이 눈길을 끌었다. 물이투표, 때거리 투표.

"자꾸 해라해라 그러니까 부담이 돼요" 한 여학생의 불평이다. 물론 자신의 권리까지 포기하며 투표를 하지 않겠다면 누구도 이질수 없는 일이지

만, 권유가 아닌 강요에 의한 선거권 행사는 강요하는 측이나 행사하는 측이나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해마다 학생회 선거에 따른 무수한 정책과 공약들이 보기 좋게, 듣기 좋게 포장된 채 이곳저곳에서 쏟아진다. 온방골의 상황과 현실 또한 해마다 개선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뾰족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한 채 전대의 답습에만 그치고 있다. 선거를 위한 선거는 반드시 그에 따른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1년 사업을 마무리하는 학생회와 1년 사업을 준비하는 학생회가 나란히 서있다. 양면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총학생회와 각 단대학생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고 한해의 사업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일(24일) 총(학)학생회에 대한 마지막 한번의 선택이 남아있다.

(문헌화 기자)

블루, 화이트, 레드 프랑스는 그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준연기’ ‘재협상 촉구’는 최소한의 요구이자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프랑스는 그들의 정신적 자산인 ‘문화산업’을 지키기 위해 정부, 국민 가릴 것이 없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신적 고향인 농촌을 지키기위해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소달구지를 모는 할아버지 그리고 농촌 우리는 얼마나 지켜내고 있습니까.

새날을 여는 민족자주론의 선봉

전국대학신문기자 연합

최근 백두산에 관한 관심이 많아진 것 같다. 특히 중국의 신화사 통신의 백두산이 얼마되지 않아 폭발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는 후부터 더욱 그렇다.

이에 여기서는 백두산의 지형과 지질에 관한 간단한 이야기만 해보도록 하겠다. 우리민족에게 있어서 백두산은 실제 이상의 상징적이고 선연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개국 설화, 그리고 옛 조상들의 활동무대였던 곳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백두산은 우리나라 최고봉의 산이다. 최근까지도 화산활동을 하였던 산으로 산의 북쪽으로는 장백산맥이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뻗어 있으며 백두산을 정점으로 하여 2천미터 이상의 산들이 여러개 있다.

백두산의 형성시기는 신생대 제3기 말 경인 2백60만년전에 있었던 화산활동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화산활동이 있기전에 백두산일대는 매우 낮고 평평한 곳이었으며 대지의 상대적인 고도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다. 이 당시의 평원과 같은 1천5백미터 정도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후 현재와 같은 화산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신생대 제4기초의 화산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때 가장 큰 현무암 대지를 형성하여 현재의 높이 2천7백44미터의 윤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백두산을 휴화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화산활동이 중지되었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백두산 부근에는 현재에도 최고 82°C 정도의 온천이 상존하

◇백두산 화산폭발 가능성

휴화산으로 언제든 재폭발 가능

부근 82°C 온천상존·간헐적 가스분출

고 있고 분기공에서는 비록 간헐적이기는 하지만 가스가 분출되고 있으며 소규모의 지진이나 산지 사면의 붕괴같은 현상은 현재에도 화산활동이 진행되고 있음을 잘 알려주는 좋은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화산이 폭발하는 형식에는 두가지 종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중심분출이고 다른 하나는 열분출이다. 백두산의 경우 이 두가지 방식의 용암분출에 의해 현재의 백두산체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북동, 북서, 동서 방향의 많은 단열대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교차하는 열점에서 마그마가 분출한 것이다. 또한 백두산의 지층은 상층에는 많은 화산회암이 존재한다. 연변에서 백두산까지 지형은 몇개의 계단 모양의 단을 또한 백두산에는 여러 종류의 지형들이 나타나고 있다. 천지의 의뢰산에 해당하는 사면에는 빙식지형의 흔적인 권곡등의 모습이 보이고 최근에는 1천6백70미터 고도에서 빙하에 의한 퇴적물이 발견되고도 하였습니디. 따라서 백두산의 지형은 방화지형내지는 주변하

지형에 속하였던 곳으로 생각할수도 있고 화산활동과 관련하여 화산지형으로 분류할수도 있다. 그러므로 위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백두산의 지형을 생각하는것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보겠다.

백두산에서 볼수 있는 또다른 지형으로는 풍식지형의 예이다. 백두산에는 강한 바람이 매우 자주 불며 주먹만한 돌들이 날라다니는 예도 있다. 그결과 풍식에 의한 구멍 풍식바위, 풍식기둥과 같은 지형이 나타난다. 하천유수에 의한 지형의 예로는 많은 폭포와 급류등을 들 수 있다. 장백폭포의 경우 수직낙차가 68미터나 되는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송화강의 원류를 이루고 있다. 계곡의 형태도 보통 V자형의 곡은 물론이거니와 이 지역에서는 수직절벽과 같은 하곡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천지 주변에는 호수 침식에 의한 지형을 볼 수 있다. 천지에 파도는 심한경우 1미터 이상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파도는 천지호수의 벽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호수의 많은 절벽을 만들어 놓

고 있다. 구두 지형의 가장 두드러진 형태는 백두산 전체를 통하여 단층들이 방사상으로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여러 방향으로 나타나는 단층군들은 그 지역이 침식에 약하게 하는 구조적인 조건을 마련해 주기도한다. 백두산 입구에서 비록 폭포 쪽으로 접근하는 곡의 양안에는 전형적인 예추사면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예추는 주위의 암석보다 강해서 침식과정이 일어나는 것보다 과상으로 무너져내려 이렇듯에 쌓이고 또 이동해 내는 현상이다. 지형학 쪽에서는 우리나라에 분포하고 있는 예추의 형성시기를 옛날석기지역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나 백두산에서 나타나는 예추사면에 있어서는 현재에도 계속 이렇듯으로 무너져내리고 있으면서 산사면의 경우 안정성을 유지해가고 있다.

다음은 천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해발 2천7백55미터, 남북길이 4.55킬로미터, 동서길이 3.35킬로미터 수변면적이 9.82평방킬로미터이다. 평균수심 2백13미터이고 최고 수심은 3백44미터이다. 최저 기온은 영하 47.5도씨이고 최고기온은 18도씨이다. 최고풍속은 초속 60미터이고 강수량은 연평균 1천4백 밀리, 식물은 2백여종이 서식하며 주변둘레가 14킬로나 된다.

천지의 수온은 대기로부터 공급되는 강수와 강설 및 지하수에 의한 것으로 이렇게 보충되는 물과 땅속으로 스며드는 물이 균형을 이루며 수심 깊숙이 1.67미터에 이른다. 천지의 형성시기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천지주위에는 16개의 봉우리가 있으며 기후가 자주 변하기 때문에 부근에는 항상 습기가 많고 순식간에 변화가 일어 바람이 일며 짙은 안개가 끼며 구름이 몰려 오기도 한다. 지금까지 천지에 관해서는 잘못 알려진 경우가 많다. 그중에는 하나는 천지가 단순히 하나의 분화구로 되어 있으리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본인의 관찰에 의하면 백두산의 화산폭발의 시기나 횡수등을 고려해 최소한 3~4개

이상의 화구가 연합되어 현재와 같은 화구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 이유는 천지호수의 윤곽이 지극히 불규칙적이며 용암류의 방향이나 퇴적물들의 특성, 천지 주변의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볼때 그러한 결론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또 한가지는 천지호수에서 동쪽으로는 두만강이 흐르고 서쪽으로는 압록강이 흐르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천지호수에서 천지 밖으로 나가는 수로는 정백폭포로 이어지는 송화강의 원류밖에 없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은 다른쪽사면에서 흘러내리고 있음을 분명히 해둔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백두산은 일반적으로 휴화산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고 최근에 일어난 일본이나 필리핀등에서 일어난 화산 폭발과도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백두산에는 여러 형태의 지형이 나타난다. 즉 화산활동의 흔적이 남아있는가 하면 빙하 지형의 흔적이 존재하고 구조 현상과 관련된 지형들이 산재해 있다. 따라서 백두산의 지형은 종합적인 입장에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천지의 형성은 수차례의 화산 폭발에 의한 화구가 연합되어 무너져버린 흔적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앞으로 천지가 언제 다시 폭발할런지는 몰라도 다시 폭발할 가능성은 여러가지 상황으로 비추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김주환 (사범대 지교과 교수)

◇박사의 원종문류집해

서술, 자신견해 회통형식으로 전개
인분가설·과분불가설 논의 필요

원종문류집해는 박사의 찬술이다. 원종문류집해는 고려 11대 문종(1046~1083재위)의 내제 아들인 의천대각국사(1055~1101)가 찬한 원종문류를 집해한 것이다. 이 책은 일본의 사학자였던 금서용박사가 교수로 재직하고 있을때에 수집하여 소장하고 있다가 사후에 천리대학에 기증되어 현재 일본 천리대학 도서관 금서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1959년 경도대학에서 발간한 금서문고목록에도 수록되어 있다. 간행자 필자에게 전해 받은 것이 인연이다.

김진교수는 이 책을 읽고 '오자' 또는 '읽기 어려운 글자'는 친절하게 모두 교정을 보여 함께 기재하였다. 뿐만 아니라 박사의 상세한 전기는 알 수 없지만 최선한의 '용두산용수사개창기·고려사', 이인로의 '파한집', 최자의 '보한집' 등에 의해 박사의 연대를 추정하여 구백대학교학부연구기요제52호에 투고했다.

김진교수의 설에 따르면 박사는 보조 지눌(1158~1210)스님보다 약간 선대의 인물이라고 설명하고 박심을 의천대각국사-무애대각국사-석운-박심의 순서로 그 계보를 밝히고 있다.

박심의 원종문류집해는 원래 상·중·하 전3권으로 찬한 것이나 현재는 중권만이

남아 있다. 가까운 세월에 누군가에 의해 상·하도 발견되어 모두 갖추어 완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김진교수는 박심이 원종문류집해를 찬술한 연대에 대해 밝히기를 용두산용수사개창기에 주지석운이 명종3년(1172)에 입멸한 뒤 이를 계승하여 제3대 주지가 된다. 대정21년(1181)에 용두산용수사개창기의 석비가 건립될 당시 박심은 이 절 주지에 임하고 있었다. 이 책 서두에 원종문류집해중해동백산전교사문 박심 집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대백산각화사에 머물러 있던 때의 찬술로 추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책에는 성화4년 솔지제조 선국간경도감본교역개성부중수라고 쓰여 있어 이조 성화4년(1468) 개성에서 간경도감에 의해 중수된 것이다. 고려 대각국사에 의해 원종문류가 찬술되어 이난다시 박심에 의해 집해되었고, 이조 성화4년에 중수하였더라면, 고려에서 이조까지 화연에 관한 연구가 성행했음을 입증하고 있다.

간경도감은 이조제7대 세조7년(1461)에 설치하여 제9대 성종2년(1471)에 폐지된 때까지 11년간 계속되었다. 이 때에 중수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원종문류 전2권을 3권에 집해한 것이라면, 이는 원종문류 22권 전체를 집해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원종문류집해권중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당법장(643~712)의 화엄경담권기 20권에 대한 집해라고 볼 수 있다. 중권 전체의 내용은 △중요의 △초화이지의 △극도해의 △중국의로 분류하여 집해했다. △중요의는 탐연지에서 보살심지공에 대한 문제를 서술한 것으로 박심은 다른 것 보다 가장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박사 자신의 사상을 교묘하고도 명쾌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고대 많은 화엄학자들이 가장 심중하게 다루었던 인분가설 과분불가설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박심의 견해가 어떻게 표명되고 있는가를 검토 정리함으로써 박심의 원종문류집해가 갖는 화엄사상사상 그 위치를 알 수 있는 요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박심의 서술방법에 있어 특이한 점은 먼저 탐연기의 원문을 제시하고 이를 해석함에 있어 중간(738~839)의 화엄경소와 연의초의 견해를 가장 많이 도입하고, 자신의 견해는 삼입형식으로 하여 화통해간다. 그리하여 자신의 결정적 견해표명은 단호하게 내리는 확실성을 나타내고 있다. 단지 해동의 화엄초조라 할 수 있는 의상(625~702)의 견해는 삼입하지 않는 반면, 원효(617~686)의 심원화정론·중요등을 인용하고 있는 점이다. 박심은 자신의 견해를 화통형식으로 밝히기위해 원효의 논법과 사상을 중시 하였음을 짐작케 하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앞으로 우리 불교문화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자료수집에 모두의 마음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신현숙

(불교문화대 불교학과교수)

과학에세이

인터넷, 무한한 서비스 보고

때문이었다. 처음으로 접속한 나우콤의 인터넷. 거기에서 나는 외국인과의 대화를 시작했다. 처음 대화에서 나는 나의 영어실력에 기죽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다음부터 영어 사전을 준비해 놓고 채팅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쓰는 속어나 줄임말은 알아볼 길이 없었다. 그래서 상대방에 되묻곤 했던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이렇게 몇번을 대하니 이제는 얼마간의 요령이 붙었다. 그래서 말도 줄여서 간단히 하고 많은 질문을 하게 되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대화는 POM이라는 nickname을 갖은 lyes kiou라는 프랑스인과의 대화였다. 처음에는 서로 간단한 인사를 주고 받았다. 그러다가 서로의 나이에 대해서 들었다. 이야기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학생이고 25살인데 high school에 다니고 있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프랑스의 교육제도가 우리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한참을 이야기 하다가 이번에는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었다. 자기는 한국 여성을 좋아한다고 말하고는 바로 그쪽에서 여자친구의 sex매너는 어떠한지 물어왔다. 이내 나는 이 사람이 인종은 부류의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는 기분이 나빠 인사만 하고 바로 접속을 끊어 버렸다. 하지만 접속을 끊고 곱씹어 생각해 보니 프랑스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의 차이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처럼 외국인과의 대화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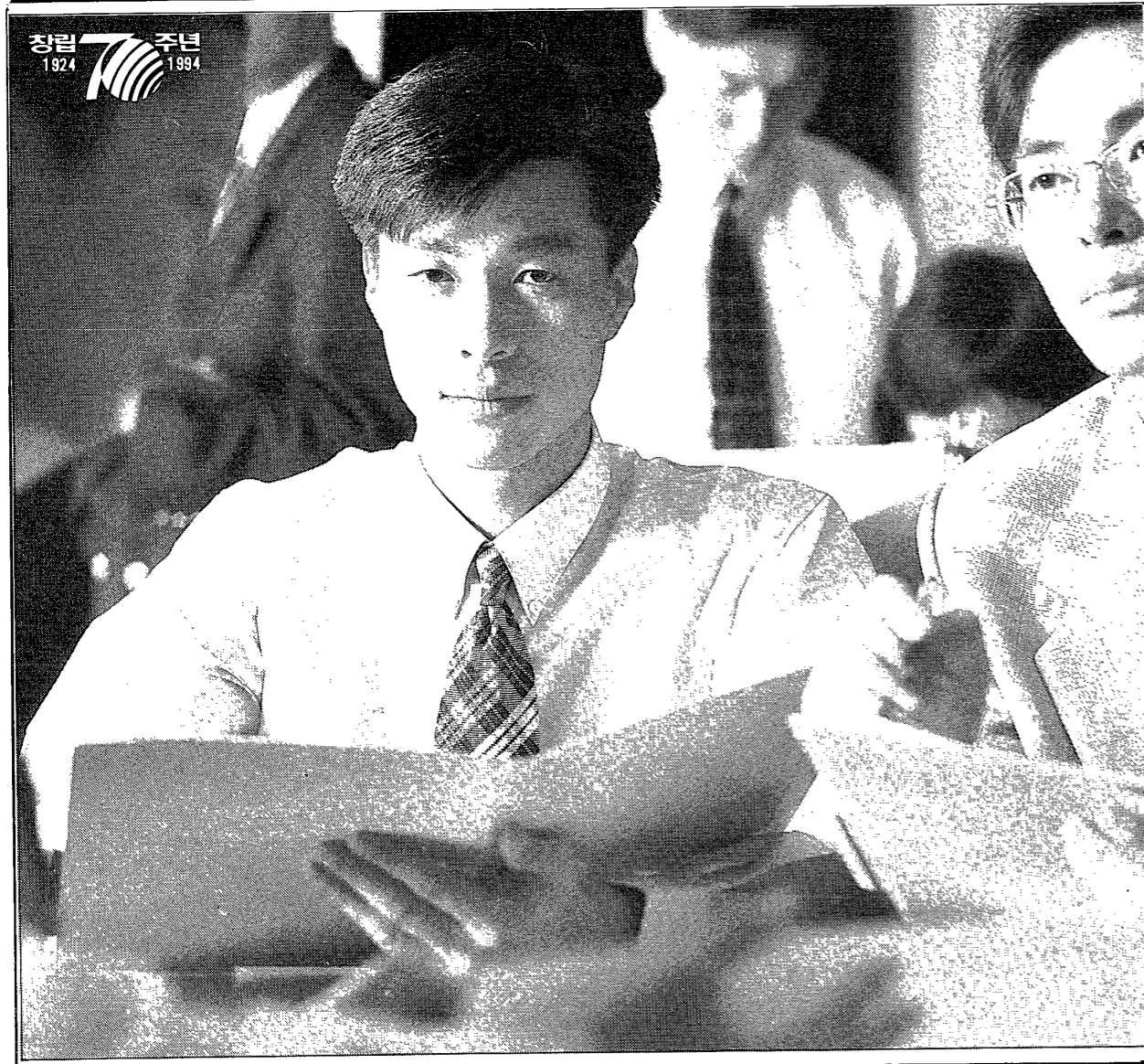
컴퓨터이야기

통해서 우리는 각각의 다른나라의 문화를 배울수도 있고 영어 실력도 늘릴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 외에도 인터넷에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WWW라는 기능을 이용해 인터넷을 더 편리하게 사용하던가 어떤 한발씩 기다리면 해외의 편한 편지를 이제는 전자메일을 이용해 하루에도 몇번이고 보내고 받을수가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수많은 인터넷의 기능들이 있다. 하지만 이시간에 그것들을 다 이야기 하지는 않겠다. 서점이나 국내 통신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인터넷에 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이와같은 인터넷 사용에 나 자신이 가장 기쁘고 활용한 것은 내가 서강대의 컴퓨터를 이용해 NASA의 자료를 검색했던 것처럼 인터넷상의 세계 모든 컴퓨터를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터넷은 우리에게 무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루 빨리 인터넷에 접속한다면 그 사람의 삶도 또한 그만큼 넓어지고 무한해 진다고 할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것을 만족시키기엔 참으로 어려움이 많다. 그중에서 대학이라는 곳조차도 학생들의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니 참으로 문제가 아닐수 없다. 그러나 나빠 인사만 하고 바로 접속을 끊어 버렸다. 하지만 접속을 끊고 곱씹어 생각해 보니 프랑스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의 차이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처럼 외국인과의 대화를

유상현

(이과대 물리학과 자연과학연구원)



인재를 찾으려고만 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스스로 인재를 키워냅니다



추천,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등 수많은 과정 끝에 육성을 거치내지만 때론 기업 스스로의 무관심이 애써 찾은 인재를 오히려 도태시켜 버립니다. 인재를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열을 가지고 기업 스스로 키워내야 합니다. 삼양그룹의 신입사원은 사회적 입문을 위해 해외연수를 비롯, 6개월간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자기개발과 자신의 적성 개발을 도모합니다. 또한 2년차 이상의 사원들은 3개월간 현업에서 완전히 떠나본인이 계획한 교육과정 (Future Leader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국제화시대를 앞서갈 21세기 미래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삼양그룹은 신학원들의 차원에서 매년 (대학생 해외 여행연수 및 기업연수)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88년부터 21회(전국대학생 논문현상공모)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 주식회사 삼양사 (화학, 식품, 사료, 화학, 환경사업) •삼양중기주식회사 •신일포도당주식회사 •삼남석유화학주식회사 •삼양화학주식회사 •신원제분주식회사 •삼양종합금속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양메디칼 •디안 삼양 피아제 •삼양그룹연구소 •양평회 •수당양평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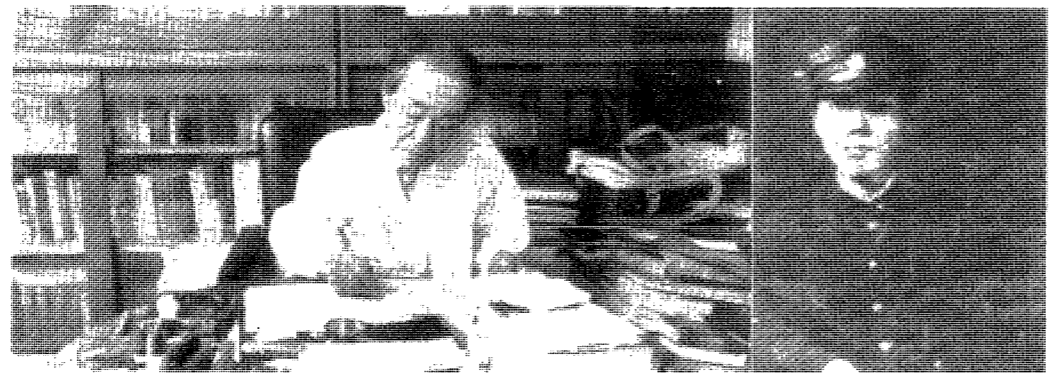


미당 서정주시인 팔순기념행사 '인생 여든 해, 시 예순 해' 시세계 재조명 학술회의·장수기원 축하연 열릴 예정 "시작(詩作)인생 환갑잔치마련 후배에게 감사하고 오감할 뿐"

미당의 모습에는 신(神)적인 풍모가 엿보인다고 누군가 말했다. 어느덧 올해로 팔순을 맞는 미당 서정주시인을 축하하는 자리가 될 '인생 여든 해, 시 예순 해' 행사가 동국문학인회, 총동창회주최로 오는 12월 2일 인터콘티넨탈호텔 대연회장서 열린다.

팔순축하연 준비위원회의 한국문학연구소장 홍기삼(국문학) 교수는 "우리 문학계 전반에 원로문인을 존경·우대하는 풍토가 일반화되어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본교출신으로 현재 종신명예교수로 계시기까지 본교와 뗄 수 없는 인연을 지니며 한편으로 학교명을 드높인 선배문인에 대한 후배들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이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미당 서정주시인은 이 행사를 맞아 "후배동문들이 이 일방적인 사랑의 팔순잔치를 마련해준데 대해 나로서는 오감하고 감사할 뿐"이라며 "나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지닌 후배가 배출되기를 바란다"는 말도 아울러 덧붙였다. 스스로 건강관리에도 철저하다는 서정주시인은 앞



◇미당은 팔순의 나이에도 여전히 왕성한 창작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1935년 중앙불교전문학교 재학시절의 미당.

으로도 술이 다할때까지 글을 꾸준히 쓸 생각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노시인의 숨은 열정을 볼 수 있었다.

중앙불교전문학교로 본교와 인연을 맺기 시작한 미당은 우리대학을 '우리고향중의 고향'이라 하는 시로 표현한다.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져 들어가 살던/그 연꽃 내용새가 나고/목을 베니/젓이 나 솟았다는/성(聖)이차 본의 강소리가 늘 들리고.....'

인생 여든 해, 시 예순 해'행사는 미당 시를 재조명하는 자리가 될 1부 학술회의와 2부 축하연으로 진행됐다.

본교 한국문학연구소 주관하는 학술회의는 '미당 시의 영원과 현실'에 대해 발표할 서울대 오세영교수 등 4명의 주제발표에 이어 홍신선등 4명의 질의및 토론이 있다.

유재용 국문과강사는 '바람과 종류에서' '미당 시에서 바람은 이미 지이자 모티브이고 미당 자신의 생

명중동의 형이상학이다'라며 "미당의 바람과 종류는 한국시의 역설과 비전을 동시에 체현한다"고 밝힌다.

'서정주의 초기 시에 나타난 미적 특성'을 발표하는 이승훈 한양대교수는 "서정주의 초기 시가 보여주는 미적특성은 한마디로 갈등의 구조라고 부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갈등이란 단순히 이질적인 두 요소의 대립·모순의 관계가 아니라 갈등이 끊임없이 지양되는, 그러면서도 또한 갈등을 생산하는 특이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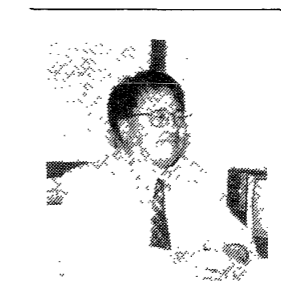
변증법적 양상을 보여주는 그런 갈등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그 예로 '문'을 들고 있다.

한편 황현산 고려대학교수는 '서정주 농경사회의 모더니즘'을 통해 '미당의 문학사적 위치는 그 정서의 깊은 뿌리를 농경사회에 두고 있으면서 근대적 시의 개념을 깊이 이해한 사람의 처지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서구 근대시에 대한 뛰어난 감수성에 힘입어 전통적 농경적 세계의 정한에 새로운 표현양식을 부여하고 그 깊이를 되살려내는 한편 이 이입된 근대시의 정서에 민족적 감수성의 일단을 부여하여 그 육체로 삼았다"고 밝힌다.

2부의 축하연에서는 박재천동문시인의 시로 읽는 인생 여든 해' 낭송에 이어 미당시 '자화상', '귀족도', '추천사들'을 연극인 손숙씨등이 낭송한다. 이외에도 이길주교수의 출, 가수 송창식씨의 '푸르른 날' 노래, 안숙선씨의 축하관소리 등이 이어진다. 한편 축하연 참석자에게는 한국문학연구소 편찬한 논문집 '미당 연구'를 증정한다.

1936년 동아일보에 시 '벽'으로 등단한 이래 시작(詩作) 나이로만 커도 환갑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처다 그의 문학적 업적을 되새기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노시인에 대한 장수를 축수함과 아울러 동국문학 발전을 모색하고 다짐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김소영기자)

달 하나 천 강에 사람답게 사는 법



약 3년전 내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나는 우연히 "번다"라고하는 사형집행 실태를 알게 되었다. 번다는 3명의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죄목으로 사형되었다. 몇십년만에 처음으로 교수형이었던 때문에, 많은 언론에서 이 사건을 관심있게 다루었다. 번다 자신은 사형집행 하루전까지 기자회견의 인터뷰를 거절하다가 사형집행 몇 시간 전에야 비로소 인터뷰에 응했다.

왜 어린이들을 살해했느냐 라는 질문에 죽음의 앞에선 그는 진실로 자신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그 자신의 불우했던 삶을 이야기했다. 결론가정에서의 그의 불행했던 어린시절, 그의 왜소한 신체와 공부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위의 친구들로부터 놀림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이들에게 해를 가함으로써 무언가 자신의 존재를 느끼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나는 그때 이 사형수와 내자신이 과연 크게 다르다고 스스로 반문한 적이 있었는데 나는 솔직히 다르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었다. 그저 행동으로 옮기진 못했지만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내자신이 그러한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면 나 자신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자상이 없다.

우리가 원하는 원하지 않은 우리는 관계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수많은 사회적 관계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세가지 종류가 있다고 한다. 첫번째 종류는 공동체에 누를 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며, 두번째 종류는 겨우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유형의 사람들을 말한다. 세번째는 자신과 자신가족에게도 충실하지만 남을 위해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세번째의 유형을 말한다. 진실로 사람답게 사는 사람은 아마도 이 세번째 유형에 있는 그들이 아닐까 싶다.

그렇다면 이 세번째 유형의 사람들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스스로 자신의 권리와 사회적 지위를 포기하고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본인의 태도와 행동에서 낮아지는 겸손함을 가져야 할 것이고, 동시에 우리는 이 사회에 빛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두번째는, 격려하는 사람(encourager)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상대방의 생각이나 아이디어에 쉽게 냉소하고, 심지어는 남의 결정을 보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중종 격려의 말 한마디, 칭찬의 말 한마디가 힘과 합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세번째는, 자신의 권위를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중종 우리의 관계는 미움과 증오 혹은 갈등으로 가득 차 있다. 네번째는 착각하며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용기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사회가 더욱 병들어 가는 것은 상식이 통하지 않고 진실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악한 인간일지라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진실을 따르고 진실앞에서 약해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용기와 올바른 신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자신의 자아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남을 돕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자아를 방어하는데 그의 모든 에너지를 쏟고 남에 의하여 쉽게 상처를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은 순수하게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돕는 것일 수도 있다.

박 중 회
상경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경주캠퍼스 동국문학의 현주소를 찾아서 '동국문학회' '시선' 동인통해 문학적 열의 발산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문학의 동량이 될 가능성 지녀

대 중반을 맞게 되었다. 졸업생이 생기고 학생수가 늘어나면서 제과 권력으로부터 비롯된 한국적 현실을 비판할 수만은 없다는 자각이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경주교정에 전연되었다.

이러한 기류는 지금까지 내려온 것, 당시 상황 모든 것에 대한 현실적 반성을 요구했으며, 기존의 동국문학전통까지 의심케 했다. 종래의 것만으로는 현실을 감당해 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갖들인 시대적 반성이었다. 이러한 위기감과 의심을 갖기 시작할 무렵, 하성훈이 시로 '한국문학'을 통해 덜컥된 문단에 진입했다.

이 기회에 명멸해가는 문학의 전통을 다시 찾아야겠다는 뜻을 모아 녹아내려 몇몇이 모여 '시선'이란 동인을 만들었다.

모이고보니 구성원들은 쓸데없이 나이를 먹어서 진화했거나 한국적이 모자란 불구자(?)가 대반이었다. 도서관 영인본을 뒤져 지나간 좌파문학을 복사하고 술판과 싸움질, 방만한 자취생활, 험물만 남은 허허벌판 유적지에서 기행등 졸업 후 취업과 무관한 생활과 학업을 계속해

일화란 슬하에 뿌리고 다니는 문학적 치기만 계속했다.

그러다 86년 필자가 '동국문학'에 시를, 87년 백규홍이 '소설문학'에 시를, 88년 정병근 송종욱이 시와 시조를 '불교문학'에, 89년 남효선이 '문학사상'에 시를, 90년 이윤학이 '한국문학'에 시를 발표하며 문단에 적을 두게 되었다. 모두 '녹아내려'의 결의를 다졌던 동인들이었다.

이에 앞서 회복으로 신춘문제를 통해 등단한 한기철이 있었고, 조중희가 대구매일 신춘문에 소설로, 박경화(시조), 윤희순(시), 김명석(시) 등이 문예지를 통해 얼굴을 내밀었다.

현재 시작활동이 가장 활발한 윤성근은 이미 여러권의 시집으로 광역화한 인식세계와 변화무쌍하고 어지러운 상상력으로 예리하게 현실을 요리해내는 특유의 시적 성취를 이루고 있다. 평단에서는 일찍부터 윤성근에게 일상성과 시대에 대한 '폭넓은 시성'을 가진 시인으로 '날카롭고 비범한 상상력을 과시'하고 있는 탁월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친화력, 또는 근접성을 통해 인간사의 사정을 '정감하게 투영'해내고 있는 백규홍의 시 역시 필자가 주목하고 있는 바다. '어두운 풍령의 자아를 친숙한 자연을 매개로 시인의 내면을 드러내는 백규홍의 시는 서정의 백미다.'

낮고 하얗은 대상과 삶, 집단의 삶에 따뜻한 시선을 던지고, 그들의 희망과 기다림을 위하여 끝없는 몸놀림을 하는 남효선의 시편들은 절박하고 날카로우면서도 독자적 희망을 보여준다.

삶에 대한 진지하고도 쓸쓸한 성찰을 담고 있는 이윤학의 시는 '유연한 상상력의 반추'를 통하여 아름답게 삶의 주변을 변주하고 있다.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이윤학은 첫시집을 통해 '동들의 상징, 혹은 비유의 탁월한 효과를 알리고 리를 통해 삶의 외곽된 부분을 상기시켜 준다. '동'을 알레고리의 가능성을 독특하게 탐지해내는 이윤학은 내밀한 일상의 성찰을 통해 자아와 세계 사이를 내면고백으로 친철했다. 비추주는 미덕을 시에서 보여준다.

폭넓은 시어와 현란한 이미지로

경주캠퍼스 동국문학은 15년이란 짧은 역사를 지니고 있으나 그동안 적지 않은 문인들을 배출했습니다.

동국문학의 거대한 산에 비해 아직은 밟아낸 땅에 지나지 않으나 앞으로 경주캠퍼스 문학의 발전 가능성을 볼 때 '동국문학의 현주소를 찾는 이 시점에서 경주캠퍼스 문학의 전통을 되새기는 일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국문학의 빛나는 전통, 그 거대한 뿌리는 불교문화가 1천년이나 만개, 현재까지 그 잔영이 생생한 경주교정에까지 뿜어내렸다.

1979년 첫 신입생을 받은 이래 교수와 학생들은 동국문학의 영예로웠던 한때와 현재를 늘 짊어지고 다녔다.

동국문학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경주교정도 동국문학의 한편을 떠받쳐야 한다는 부담감은 곧 문학에 대한 열의로 나타났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보겠다는 학생들은 전부 '동국문학회'로 몰렸다.

초기 몇년동안 서울교정과 같이 절을 옮겨가며 가졌던 '여름창작교실'에서 경주교정 문학지망생들은 동문선배들로부터 동국문학의 전통을 수혈받으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81년 윤성근이 '월간문학'을 통해 첫 발을 문단 안으로 들여놓았다.

그후 몇년간 소식이 없는데 80년

21세기 종합금융그룹 대한교육보험이 선도합니다

대한교육보험이 설립한 회사: (주) 교보문고 / (주) 교보증권 / 교보투자자문(주) / (주) 교보실업
대한교육보험이 설립한 재단: 대산재단 / 대산농촌문화재단

1958년 국민교육진흥과 민족지분형성을 창립이념으로 출범한 대한교육보험 —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앞선 경영으로 한국보험사의 신기원을 이루었습니다.

세계최초로 교육보험제도 창안, 국내최초로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 100% 적립, 계약자 1인당 최고의 이익배당금 지급, 94년 국내보험회사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회사로 선정, 11조원에 달하는 특정한 보험자산 —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기반이 아닙니다.

이제 대한교육보험은 금융국제화시대를 맞아 **능력있는 젊은 인재와 함께 21세기 종합금융그룹을** 힘차게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교육보험

◇ 대학신학풍운동은 무엇인가

교수·학생 대화시간 정례화—인성교육강화 포함
출석·과제 등 엄격한 지도·관리 될수있어

동약안에 쌓여있는 불신과 비교육적인학원풍토를 바로잡아 명랑하고 깨끗하며 충실한 강의와 연구가 이루어지는 '신동국건설'을 위한 '대학신학풍운동'이 전개된다.

신학풍운동은 교수, 직원, 학생이 모두 참여하는 범대학운동으로서 지금까지 누적이 비정상적인 대학풍토를 정상화시키는데 중점을 두면서 △명칭한 학교 △깨끗하고 정숙한 학원 △충실한 교육 △실현하는 건학정신을 표어로 세우고 있다.

신학풍운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명랑한 학교'의 건설을 위해 올해부터 △사실무근의 모략성 유인물 제작과 부작, 유포를 방지하며 '95학년부터는 △교수와 학생간의 대화시간 정례화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윤리과목(불교와 윤리, 불교와 인간성) 등을 확대 개설 △신입생 교양강좌에 인성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하고 △Pass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깨끗하고 정숙한 학원'조성을

위해서 올해부터 △매월 첫째금요일을 청소의 날로 정하여, 교수, 직원, 학생이 교정과 교사 주변정소 △부서별, 지역별 책임관리제로 쓰레기 줄이기와 분리수거 및 환경정화운동 전개 △지정장소와의 구역화되지 않은 게시물 부착 금지(부착시 즉시 철거) △통행에 지장을 주는 축구등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학생의 학성기와 사물 놓이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학생회관에 각실을 정리하고 강의실 및 교정에서 휴지 안버리기 운동 등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충실한 교육'의 실시 운동으로는 '95학년부터 △교수는 엄격한 출석과 과제를 부과, 충분한 강의준비와 열성적인 학문지도 및 열정적인 성적관리를 하고 △다양한 교양교육과 실용적인 교과목(외국어와 컴퓨터)의 개설로 교육내용을 충실히 하며 △인성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독서운동(별전 등 고전을 필독서로 지정)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성실한 근무'확립과 '실현하는 건학정신'구현을 위해 △행정담당자는 교육을 위한 봉사자로서 항상 친절과 열성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성상과 스님 앞에서 경배하는 것을 교육하고 생활화하며 △크고 작은 행사는 불교의식에 따라 집행할 뿐 아니라 △불교와 유관한 학생회를 및 모임을 권장하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러한 신학풍운동을 전개 하기 위해 총장, 부총장, 각처실장 교수회장, 학생회간부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신학풍운동본부(본부장=부총장)는 오는 28일 본관에서 현관식을 갖고 구체적인 운동을 전개한다.

한편의 '푸닥거리'가 아닌 학내전구성원의 단합이래 준비와 존중이 넘치고 시간만 채우는 적당주의 수업에서 벗어난 동국이 될 수도 있도록 동약의 전 가족이 대화와 협력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곽주영 기자)



◇'12·12 군사반란자 기소추구 시민대회'가 전국연합 주최로 지난 19일 탑골공원에서 2백여명의 시민, 학생이 모인 가운데 열려 38명의 반란자에 대한 신속한 처벌을 요구했다. 사진은 탑골공원에서 본교학생들이 시민들에게 홍보활동을 벌이는 장면. (이석중 기자)

학과조정연구위 발족해
96년부터 계열별로 신입생 모집

본교는 지난 7월 교육부의 '학과 통합으로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 확정발표에 따라 '학군체계및 학과 조정위원회'를 발족하고 지난 17일 교무위원회의실에서 1차모임을 가졌다.

각 단과대 관련교수등으로 구성되었던 위원회는 이번 1차모임을 통해 교육부관련자료 및 학과-학문체계 자료등을 가지고 12월3일까지 해당학문분야 및 전 학문분야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학문체계 및 학과조정 위원회는 제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오는 12월10일부터 주회 4번 정기적인 회의를 가진후 올해 말까지 전체적인

연구결과를 종합 예정이다. 한편 본교는 내년도부터 '전산통계학군'에서 신입생을 학군개념으로 모집하고 학내 여문수업을 통하여 전체학과를 대상으로 학군 또는 계열군으로서 통합을 추진해 96학년도부터 계열별로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동계특강은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으로 화우들의 학구성을 고취 △적정수준비용으로 질높은 강의의 장 △사회의 요구하는 전문성을 갖춘 대학인양성에 도움등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강좌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사토의 고급강좌= 60명정원제, 강사- 피터슨, 교재- 엘리트 토의, 대상- 3·4학년 △시사토의= 교재- 안박사토의, 강사- 김미숙 △시사토의= 교재- 종합 토크테스트, 강사- 권병도 △일본어뱅크초급= 교재- 일본어뱅크, 강사- 안원실 △일본어뱅크회화= 교재- 일본어뱅크회화, 강사- 안원실 △고려영어어순해= 교재- 영어순해, 강사- 김신범 △유니언 영어회화= 교재- Success I, II, 강사- Native Speaker △ECC 영어회화= 강사- Native Speaker △아카데미 토크= 강사- 송철호 △Graduate English= 강사- 송대범 △AFKN정취= 강사- 송강을 △시시스템의 △거로 VOCA, 토크, Idom 특강 △매킨토시 방종특강 △OA기술 △언어특강 △편집실무 특강 △스프린트교육 △문헌면허특강. 강희순 임시위원장은 "올해 특강은 예전부터 문제시되었던 강사의 질을 높였고 그에 따라 수강료가 인상되었음에도 교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정례제 교육을 실시한다"며 "또 강사가 증가, 강좌사이의 비교평가가 가능해졌고 다양한 강좌의 개설로 학생들에게 충분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동계특강은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으로 화우들의 학구성을 고취 △적정수준비용으로 질높은 강의의 장 △사회의 요구하는 전문성을 갖춘 대학인양성에 도움등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강좌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사토의 고급강좌= 60명정원제, 강사- 피터슨, 교재- 엘리트 토의, 대상- 3·4학년 △시사토의= 교재- 안박사토의, 강사- 김미숙 △시사토의= 교재- 종합 토크테스트, 강사- 권병도 △일본어뱅크초급= 교재- 일본어뱅크, 강사- 안원실 △일본어뱅크회화= 교재- 일본어뱅크회화, 강사- 안원실 △고려영어어순해= 교재- 영어순해, 강사- 김신범 △유니언 영어회화= 교재- Success I, II, 강사- Native Speaker △ECC 영어회화= 강사- Native Speaker △아카데미 토크= 강사- 송철호 △Graduate English= 강사- 송대범 △AFKN정취= 강사- 송강을 △시시스템의 △거로 VOCA, 토크, Idom 특강 △매킨토시 방종특강 △OA기술 △언어특강 △편집실무 특강 △스프린트교육 △문헌면허특강.

강희순 임시위원장은 "올해 특강은 예전부터 문제시되었던 강사의 질을 높였고 그에 따라 수강료가 인상되었음에도 교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정례제 교육을 실시한다"며 "또 강사가 증가, 강좌사이의 비교평가가 가능해졌고 다양한 강좌의 개설로 학생들에게 충분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강희순 임시위원장은 "올해 특강은 예전부터 문제시되었던 강사의 질을 높였고 그에 따라 수강료가 인상되었음에도 교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정례제 교육을 실시한다"며 "또 강사가 증가, 강좌사이의 비교평가가 가능해졌고 다양한 강좌의 개설로 학생들에게 충분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총장선거일정 조정 촉구
입시 겹쳐 채점작업 지장줄듯

민주적 총장선출을 위한 직원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김윤길·노조위원장)는 교수회의 총장후보 선거일정 결정에 대해 선거일정이 '95학년도 입시일정과 중복되어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교수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김진철·정치외교학)는 내년 1월3일부터 5일까지 총장입후보자 등록, 1월15일(일요일)을 선거일로 정하고

지난 15일 이를 발표했는데 직원비상대책위원회는 이에 대해 선거일이 논술고사 책정기간 중이거나 그 직후가 됨으로써 과열된 선거운동으로 채점작업에 직접적인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했다.

또한 직원비상대책위원회는 총장선거기간이 입시기간으로 학교행정력이 총동원되는 비상기간이기 때문에 교수회에서 후보자심사, 공청

회, 후보자 유세 및 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극히 제한된 인원에게서만 가능한 것이라며 그동안 교수회가 '무리없는 선거일정수행'이라는 이유로 학내구성원들의 총장선출과정 참여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더 이상 명분을 갖지 못한다고 밝히고 교수회에 선거 일정의 조정과 민주적 총장선출방식을 위한 협의를 촉구했다.

비구니수행원 입주식

본교 비구니수행원이 지난 토요일(19일) 해광사에서 현관식 및 입주식을 가졌다.

본교 재학생인 비구니전원(23명)이 기거하게될 기숙사는 옛 각진선원을 총무원이 매입, 해광사로 바꿔 보수·수리 한것으로 총로구 평창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면적 5천6백15평의 부지위에 세워졌고 주지상은 전호연(불교학)교수이다.

이날 현관식에는 총무원장, 재단이사장의 격려사와 함께 석범희 동문 명예회장, 윌킨스님, 민병천총장, 전국비구니회(회장=해춘)교무부장 일범스님의 축사도 있었다.

최법혜교수 역 '울장' 발행
불교 출가교단 규범 담아

역경원(원장=김성구)은 최법혜(경주불교학) 교수가 번역한 책 '울장'을 지난 9월 발행했다.

'울장'은 일본의 사토미츠오가 고려대장경중 울에 관한 부분을 요약한 책으로 불교 출가교단의 여러가지 규범을 담고 있다.

최교수가 2년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번역한 '울장'은 총서편, 비구계편, 비구니계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서편에는 울장의 성질과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총괄적으로 해설하고 있다. 또, 현재 전하고 있는 여섯 종류의 울장과 계본, 그리고 울장연구를 위한 지침서도 소개하고 있다.

학복위
겨울방학특강실시

제10대 학생복지위원회(임시위원장=강희순·불교학 이하 학복위)는 동계방학특강으로 아학강좌와 기능

동계특강은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으로 화우들의 학구성을 고취 △적정수준비용으로 질높은 강의의 장 △사회의 요구하는 전문성을 갖춘 대학인양성에 도움등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강좌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계특강은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으로 화우들의 학구성을 고취 △적정수준비용으로 질높은 강의의 장 △사회의 요구하는 전문성을 갖춘 대학인양성에 도움등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강좌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내서점 공관위 직영운영
늦어도 내년 3월부터는 가능

본교 구내서점을 복지사업공동관리위원회(위원장=배영·경제학 이하 공관위)직영으로 운영하게 됐다.

공관위 산하 서점운영소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서점운영의 입체와 직영을 검토해 오다가 수익성과 학생들의 혜택을 고려하여 직영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 외부업자가 임대로 운영하고 있는 만해서점은 93년 9월1일부터 95년 2월28일까지 계약기간이

므로 늦어도 내년 3월부터는 공관위 직영운영이 실시된다. 공관위는 서점을 도서관의 역할을 보충하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수 있는 쪽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공관위는 현재 수행생들 바쁜 정리가 필요한 사람과 95년 신입생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직영 운영할 수 있도록 만해서점 업자와 계속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dvertisement for 'Champion's' (력키금성의 실제변혁) featuring a cartoon character and text about human resources and education. The text discusses the importance of human resources in a competitive society and promotes the 'Champion's' program as a solution for companies to find and develop talent. It includes a quote: "뛰어넘을 수 있는 학력의 벽" (The wall of academic excellence that can be surpassed). The advertisement also mentions '인사기록부에 학력난이 없다?' (No difficulty in academic records in the personnel file?) and '학벌, 학력, 성별에 관계없이 능력과 업적, 자격요건에 따라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한 인간존중의 경영이다' (Providing a place to work based on ability and achievement, regardless of academic background, gender, or status, is true human respect management).

학·전·무·대

선거여파

○...큰 일일수록 여파가 오래 남는다(7)
차기 총학생회를 이끌어 갈 총학생회장을 뽑는 큰 행사인 총학생회 선거가 끝난 지금 그 여파가 도서관 앞과 대운동장에 남아 있다는데.

도서관 앞에는 유세때 쓰이던 강단이 아직까지 남아 있고 대운동장에도 커다란 플래카드가 여전히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이에 본 회전문대자 한마디 "선거도 중요하지만 선거 뒷처리에도 신경을...".

1:1

○...학생회 사업은 이미 끝(7)

지금 각 학생회에 남아 있는 임원수와 그만한 임원수의 비율은 1:1(7)

엄연히 임기가 내년 초까지 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아있는 임원이 그렇게 많지만은 아니다.

이에따라 실질적인 사업도 이미 끝났지 오래라고.

이에 옛 성인께서 한 말씀 "하다가 마는 것은 안 하니만 못하니라".

武長정부

○...드디어 문민정부의 참을성이 한계에 도달했는가?

서울경찰청은 극악무도한(7) 폭력시위세력진압을 위해 최첨단 장비를 마련했다는 데.

선진국형 시위문화를 정착시키기위해서라며 새로 마련한 장비는 더욱 길어진 진압물, 다량의 물대포차량구입, 액화가스 분사기등이라고.

이를 본 회전문대자 왈 "경찰도 방에서 공격으로 전환했는데 이른바 文民정부로 武長정부로 바뀐이 어찌?"

대학의 주제

○...수강신청을 하려고해도 21화점을 다 채우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 벌어졌다는데.

다름아니라 강의시간이 교수 위주로 짜여져서 대부분의 교양강의가 전공수업과 겹치는 상태가 전승했다는 것. 그래서 교양은 잘해야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일부 학우들은 야간강좌로 학점을 보충한다고.

이에 한 학우 "강의 종류도 다양하지 못한 학교에서 그나마 있는 강의마저 들을 수 없으니, 대학의 주제가 학생맞았어?"

◇ 평생모은 재산 본교에 기증한 장내순할머니를 만나 "행상보따리 안 해본 장사 없어" 지극한 불심으로 하루 세차례 향불공



"지극한 불심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지요" 평소 장내순할머니와 가장게 지내는 사이인 류승철씨는 말한다.
장내순할머니는 그간 갖은 행상으로 마련한 총합 자산금 영인원소 재 일억천원을 지난 18일 본교에

기증했다. 시기로는 12억상당에 달하는 이평은 불우노인의 거처를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나 갑작스레 건강이 악화돼 평소 독실한 불교신자였던 장내순할머니는 종립대학인 본교에 장학금으로 내놓은 것이다.
동국한방병원에서 처방한 한약을 들고 장학과 관계자와 함께 할머니 혼자 거처하는 조그만 연립주택을 방문했다. 장위중에 위치한 할머니 집을 찾기가 어렵지 않았다. 각종 일간지와 매스컴에 보도된 뒷에 장할머니는 동네에서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1백원도 쥘는 구두의 할머니가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할 줄 몰랐다"고 같은 동네 한 아주머니는 얘기한다.
"별로 알릴만한 것도 못되는데

세상에 알려져 부끄럽다"고 말하는 장내순할머니는 그동안 알아온 지병에다가 이제는 활일을 했다는 안도감에서 물려온 피로 탓인지 더 수척해지고 피곤한 기색이 엿보였다. "보도를 보고 인터뷰를 요청하는 이도 많아져 할머니가 편찮으신데 일이 번거롭게 된 것 같다"고 류승철씨는 귀찮게 준다.
"담배장사, 생선·야채장사 등 보따리행상으로 인해 본 장사가 없다"고 밝히는 장내순할머니는 "길거리에서 버려진 비닐을 모아 팔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주위에서는 이런 할머니를 두고 "몸이 아무리 안좋아도 택시 한번 안타고 굴이 버스만 타고 다니는 지독한 사람"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30여년간 인연을 맺어온 성북동

수월암에 지금까지도 새벽불공을 거르지 않는 장내순할머니는 하루 세차례 향불공 올리기를 멈추지 않을 정도로 불심이 깊다.
흘로 키워 출가시킨 딸에게 그동안 모은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은데 대해 "현재의 어려운 살림으로 지금당장은 서운한 마음이 들 것이나 시간이 흐르면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장내순할머니는 말한다.
장학금의 한 관제자는 "할머니님이 완쾌하여 건강하실 때까지 동국한방병원에서 편안히 모시고 싶다"고 하고 할머니에 대한 배려를 약속하며 "합계 모은 재산을 장학금으로 선뜻 내놓으신 쉽지 않은 결정에 대한 당연한 대리"라고 밝히는 한편 "후자 외롭게 사시는 분이니만큼 화생들이 자주 찾아뵙고 말벗이라도 되어 드렸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장내순할머니의 앞으로의 여생이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배편만큼 편안하기를 기원해 본다. (김소영 기자)

영화의 패러독스

가을 영화계 결산

단편 영화계 통해 기성영화계에 신선한 인력 배출 도피적 오락물 주종이론 외화비해 한국영화 시류반영 노력 엿보여



9월이후 본격 가을이 시작되고 초겨울을 마감하는 현재까지의 한국 영화계는 골짜기 정지, 사회권의 사각지대로 인해 별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인연 북정형 비리와 지존과 성수대교 붕괴로 아시안 영화의 최고봉을 달리는 장에모의 '귀주이아기', 전장 장의 '푸른 연' 등은 아예 기억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이색적인 소재로 어필하는 대만 영화 '음식남녀' 정도만 겨우 체면치레를 하는 셈이다. 이제 우리 관객은 외국 영화하면 으레 '한탕 오락영화'라는 기준으로 영화관에 줄을 서게 되었다.
이번 계절에 선보였던 영화들은 으레 기술이론이 그러하듯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작품들로 채워졌다. 추석대목을 노리고 개봉한 외화 가운데 '컬러 오브 나이트', '트루 라이즈' 등이 많은 관객을 확보했고, 국내영화로는 '태백산맥', '개인의 범죄', '내에게 나를 보낸다' 세 편이 인기를 차지했다.
외화와 한국영화는 많은 정서적 차이를 보이는데, 외국 흥행물은 우리 실정과 무관한 도피적 오락물이 주종을 이루며, 한국 흥행물은 그대도 시류를 반영하려고 꽤나 노력하고 있다는 나름대로의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일례로 외화 가운데 평론가, 학자들에게 좋게 평가되던 '포레스트 검프', '필리프스', '내 책상위의 천사,

'순수의 시대', '레드' 등의 영화를 과연 얼마나 많은 관객이 봐주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심지어는 영화사의 고전이며 전설적인 영화 '전함 포템킨'과 해외 영화제에서 계속 수상하면서 아시아 영화의 최고봉을 달리는 장에모의 '귀주이아기', 전장 장의 '푸른 연' 등은 아예 기억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이색적인 소재로 어필하는 대만 영화 '음식남녀' 정도만 겨우 체면치레를 하는 셈이다. 이제 우리 관객은 외국 영화하면 으레 '한탕 오락영화'라는 기준으로 영화관에 줄을 서게 되었다.
반면 한국영화는 '한국적인 것이 관객을 잡는다'라는 통설을 입증시키지 못하며 우리 사회에 민연한 현실의 강박관념, 긴장감을 오락화해 낸다. 분단 이데올로기 혹은 동족상잔의 고통, 폭력파 비리와 어두운 세계, 물질화주의와 포로노에 대한 은밀한 타부관념, 대중 이러한 소재나 배경에 흥미를 느끼지 않는 우리 관객은 없을 것이다. 그 질적인 완성도에 대한 평가는 당장 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들 흥행 영화들이 대개 현실도피적 오락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할만 하다.
단지 우리 영화가 안고 있는 큰 문제점은 제작편수가 현저히 감소했다는 점이다. 스크린 쿼터제 일수가 축소되면서 더욱 위축될 것은 예상했지만, 이번 가을은 비참한 심정을 갖게 만든다. 뒤늦게나마 젊은 기획자들은 단편 영화제를 통해 기성영화계에 젊고 신선한 영화인력을 내보내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하지만 '해적'의 공문심의를 둘러싼 낡은 제도 변화하는 영화의 싸움은 이제 한국영화의 질적 성장, 수요급 문제, 심의기준 등의 적체된 현안이 일개인의 판단에서가 아닌 제도 자체의 변화가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다.
이제 다가오는 겨울은 영화계에선 정말 뜨거운 겨울이다. 외화와 한국영화의 본격적인 싸움은 비로소 시작된다. 그 승부는 영화사가 걸어오지만, 결정은 오로지 우리 관객만이 할 수 있다.
정재형
(예술대 연영과 교수·영화평론가)

일본관련서적 '봄', 일본(인) 실체 찾기 일본을 보는 다양한 시각 긍정적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가 그만의 특이한 문체로 이 땅에 상륙한 때는 80년대 후반이었다. '감정을 투르하지 않는' 하루키 문체의 특이성은 쿨(cool)과 드라이(dry)라는 두개의 형용사로 대표할 수 있으며, 등장인물의 이름이나 지명 등 고유명사를 지워버리면, 사건의 무대가 일본이라 단정하기 힘든 그의 작품을 가리켜 도시소설이라 정의내리기도 한다. 일본적 감성에 찌들었던 이전 작가군들과는 확연히 다른, 끈적거리는 감정을 배제하고 감각적이며 세련된 그의 작품이 번역되어 나오자마자 한국의 젊은이들이 곧 그에게 열광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최근 우리 문단에 젊은 작가 몇 사람이 등장했다. 그들은 짧은 호흡의 감각적 문체, 영화를 보는 듯한 속도감있는 빠른 전개로 통하여 삽시간에 자신들의 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들었다. '1961년 비틀즈가 탄생

했고, 그 해는 내가 태어난 해이기도 하다. '그 해 월남전이 끝났고 헤비메탈의 대표적인 그룹, 레드 제플린이 'Stairway to Heaven'을 부른 해이기도 하다'라는 표현이 간간히 섞여 있는 글을 읽으며, 하루키의 소설을 대하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이런 중에 최근 서점가에서는 진귀하다며 진귀하다고 말할 수 있는 '현상'이 눈에 띈다. 이제껏 학습서적 코너나 경제 및 무역 코너에서 볼 수 있었던 일본책은 최근 교양 및 인문사회 코너로 확산되고 있다. 이들 책들의 공통적인 성격은 '일본론', '일본인론'이라 단정지을 만큼, '일본(인)'을 '나름대로'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일본을 이상적 국가 중 하나로 꼽으면서도, '절대로 일본한테만은...'이란 의식을 버리지 않는 모순을 스스로 설명하기 힘들어하는 이 땅에서 그러나 일본을 객관적으로 보려했던 최초의 시도가 80년대 초에 있었다. 근대 이후 최초의 일본인론이라 말할 수 있는 이아영씨의 '축소지향의 일본인', 나라 인파에서 광장한 반향을 일으킨 이 책이 출간된지 십수년 후, 다시 일본(인)에 관한 책들이 봄을 일으킨다.

정치지도자 없는 일본의 콤플렉스를 지적하는 '일본의 빈곤',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로 고발한 '청산하지 못한 역사'에 '자르기 지향의 일본인', '일본은 없다', '日本을 망친 9인의 정치가', '일본어자는 죽었다', '일본-일본인', '일본은 있다' 등 일본 관련 서적의 홍수는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이다.
1993년 11월, 자신만만하고 배짱 두둑하고 직선적인 전여유이라는 여자가 '일본은 없다'라는 아주 주관적인 책을 발표했다. 이후, 일본관련 서적의 출판 러시를 촉발시켰던 이 책은, 그녀가 일본방에서 개인적으로 체험한 일들을 강한 어조로 쓰고 있다. 그녀는 사치스럽고 향락적인 일본여성과 팻뱃함과 폐쇄성을 간직한 일본인들이, 결코 참된 의미의 국제화를 이루지 못할 민족이라고 주장한다. 그녀 자신이 '절대로...주관적인 글'이라 밝히고 있는만큼, 일본인들을 마음껏 밀어붙인다. 불행할 만해도 한가리이 꿩구경을 하는 그들을, 결코 행복해서는 안될 사람이라 단언한다.
'일본은 없다'가 출간된 1년 후 이 변에는 '일본은 있다'가 나왔다. 일본주재 외교관인 서현씨는 근세



말에서 근대 초에 걸친 일본인의 개화지를 담담하게 서술한다. 특유의 실리성과 호기심으로 이미 19세기 중반부터 네덜란드어와 영어, 불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유럽의 근대화에 자극받아 재빨리 유럽화로 틀어서는 기만함을 단순한 기회주의라 매도할 것인가. 유연성없는 쇠국으로 나라가 위기에 빠진다는 사실 자체도 인지하지 못했던 우리의 무지함을 간파할 것인가.
전여유씨와 서현씨는 자신만의 '일본-일본인'을 말한다. 그의 저자들 역시, 자기 나름대로 본 '일본'을 말한다. 하지만 2천년을 눈앞에 둔 지금에서야 우리는 일본인을 보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 수십 개의 일본인론이 나온다고 해도 그것은 우선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전 단 한번도 그들을 마주보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송현아
(대학원 일본과 석사과정 3학기)

메이커

메이커 열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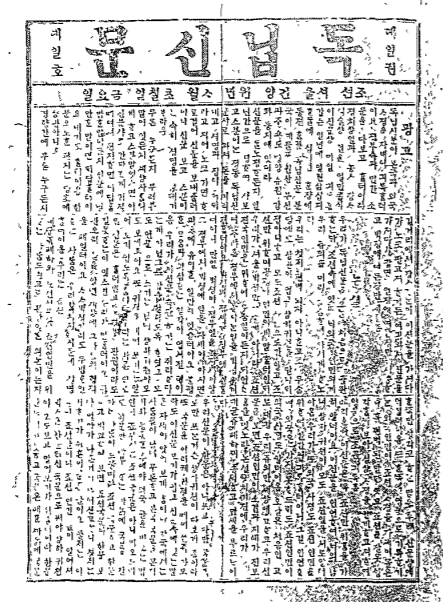
들이 거의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청바지를 입고 다닐만한 계층을 생각해 보면 그럴만도 하겠다는 생각을 접어두고 왜 하필 계승인가...하는 의문을 가지고 조금 깊게 들어가다보면 바로 그곳에는 중·고·대학생들의 의식에 자리잡은 사치문화를 찾게 된다. ▲베베를 차고다니지 않으면 원시인, 이름있는 청바지를 입지 못하면 남방을 꺼내 입는 유행의 바람이나 메이커 열풍이 튼튼한 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다.
또한 이러한 사치문화의 기저에는 '이름값'의 상승효과를 노리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특정 유행상품 및 상품에 대한 수요증의 집단구매심리를 자본주의적 특성의 하나로 넘길 수도 있다. '물신숭배'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외형의 화려함을 좇으며 이름만으로 속내를 숨길려 하는 외형의 조건을 찾는 심리가 사회적으로 민연되지 않았는가 의심할 뿐이다. 김영삼 대통령의 '국제화'를 뛰어넘는 '세계화'의 장기계획안 발표를 들으며 그 동안 국제화란 미명속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통분담이 민중들에게 고통전담으로 다가오는 사실을 상기하며 '세계화'란 이름이 우리에게 다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단지 이름값의 상승효과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다. (재)



중앙일보가 신문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신문, 독립신문 우리나라 최초의 색판신문, 중앙일보



종합뉴스섹션, 경제섹션, 스포츠섹션
중앙일보가 3색판신문 시대를 열었습니다.
1994년 중앙일보가 新聞史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풍부한 정보를 살기 위해 48면으로 증편하고, 원하는 정보를 읽기 편리하게 3개 색판으로 나누어 보다 많은 정보를 드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색판신문, 중앙일보 - 한국 新聞史의 큰 역사로 남을 중앙일보를 지금 만나 보십시오.

중앙일보는 정보를 드립니다.
종합뉴스섹션
정치, 사회 등 국내외의 생생한 뉴스를 전문기자의 깊이있는 분석과 해설로 한층 높은 정보로 다시 가할 기사 - 중앙일보 종합뉴스섹션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경제섹션
유행, 산업, 부동산, 국제경제 등 경제관련 정보를 경제전문기자가 심층 분석하여 알기 쉽게 풀어쓴 기사 - 중앙일보 경제섹션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섹션
스포츠, 레저, 연예, 방송 등 라이프스타일이 다채로운 신체대의 관심사를 꼼꼼히 챙겨 신선함을 안겨 드리는 재미있고 알찬 정보 - 중앙일보 스포츠섹션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